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26 MARCUS AURELIUS THE PHILOSOPHER KING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Marcus Aurelius the Philosopher King」 (원서 PDF 191~204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11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절대 권력은 사람을 망친다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망가지지 않았는가."

플라톤 이래 현자들이 꿈꾼 철학자 왕이 마침내 나타났다. 무소니우스가 시리아 왕에게 한 말, 노예였던 에픽테토스의 가르침, 루스티쿠스가 건넨 책이 절대 권력을 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닿은 것이다. 그는 그 권력의 절반을 스스로 나누었고 역병과 전쟁과 여덟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원서는 그가 타고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에게 쓴 글로 스스로를 다잡은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공부도 남에게 보이려는 노트가 아니라 나에게 쓰는 노트가 사람을 바꾼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25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다른 통치자들과 견주어 평가하라(199쪽 ¶5~¶6) / 가장 진실한 아이 — 하드리아누스가 본 것(192쪽 ¶5~¶7) / 완벽하지 않았기에 너도 할 수 있다(197쪽 ¶1~¶3) / 지켜야 할 것은 성품(194쪽 ¶3)
4~5	**밑줄 함축 의미**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 cut from their own cloth / Verissimus / wear the purple / shoulders made of ivory / Caesarified, or dyed in purple / the headwind of power / cut this Gordian knot / kicked the can down the road / Be one / domesticating / a book for the author / hold a candle to / a placeholder / The cucumber is bitter? / Come what may / make your exit with grace
6	지칭 추론	he · him · his가 마르쿠스 · 아비디우스 · 암살자 사이를 오가는 195쪽 ¶3~¶4 / the latter = 에픽테토스 · the former = 마르쿠스(194쪽 ¶4) / he(in turn) = 안토니누스 피우스(193쪽 ¶2) / they = 마르쿠스 주변 사람들(199쪽 ¶4) / they = 물질적 안락(203쪽 ¶1)
7~8	내용 일치·불일치	하드리아누스의 계획(193쪽 ¶2~¶7: 138년 2월 25일 · 50세 · 15명 · 19 · 24 · 40세) / 『명상록』(197쪽 ¶5~¶7: 167년 · ta eis heauton · 투스쿨룸 · 블랜샤드 1984) / 가족과 역병(194쪽 ¶1~¶2) / 상실 연표(202쪽 ¶3~¶4)
9~10	**어법**	Just as ~, so too had 도치 · on the condition that + 원형 · as if + 과거완료 · seem to have p.p. · 가주어 it + not to V · so far from -ing that · bring oneself to V · Neither A nor B 수 일치 · help + O + 원형 · enough that · Nowhere can 도치 · 목적어 문두 도치 — 9번은 아퀸쿰 조각상과 하드리아누스의 철필(199쪽 ¶2~¶4), 10번은 도나우 원정과 '여덟!'(201쪽 ¶6 ~ 202쪽 첫 줄)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sad · natural · under control · every · harmful(↔harmless) — 11번은 196쪽 ¶6~¶8 / prudent↔reckless · leniency↔severity · fleeting · archaic↔modern · tolerant↔intolerant · pragmatic↔idealistic · arrogance↔humility
12	빈칸 추론	take reality on reality's terms · impressively pragmatic(200쪽 첫 줄) / What we need to protect is our character(194쪽 ¶3) / Be one(195쪽 ¶5) / Stoicism(193쪽 ¶8) / let it go with indifference(203쪽 ¶1)
13	문장 삽입	역병 속에 머묾 → 국고 고갈 → 쉬운 길 셋 → 장식품을 팖 → 값을 돌려줌(195쪽 ¶1~¶2) / 반란을 기회로(195쪽 ¶3~¶4)
14	무관한 문장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 엄격 · 영혼이라는 쉼터(202쪽 ¶1~¶2)에 같은 장의 다른 사실(로버트슨이 전한 향의 믿음, 203쪽 ¶3) 끼워 넣기 / 아퀸쿰과 분노 억제(199쪽 ¶2~¶4)
15	순서 배열	빈 근처의 병 → 아들을 떠나보냄 → 친구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 180년 3월 17일(203쪽 ¶6 ~ 204쪽 ¶2) / 상실 연표(202쪽 ¶3)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잇따른 상실과 '다치지 않은 것이 행운'(202쪽 ¶3 ~ 202쪽 인용) /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만 엄격(200쪽 ¶1~¶2 · 202쪽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8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촘촘한 장이다(121 · 3세 · 10~11세 · 17세 · 138 · 50세 · 15명 · 19 · 24 · 161 · 40세 · 26세 · 13명 · 5명 · 180 · 5백만 · 15년 · 19년 · 35년 · 8명 · 167 · 17항목 · 2,100단어 · 10퍼센트 · 80번 · 8번 · 12년 · 8년 · 800 · 58세). 인물도 많다(하드리아누스 · 트라야누스 · 안토니누스 피우스 · 루키우스 베루스 · 파우스티나 · 아비디우스 카시우스 · 디오 카시우스 · 헤로디아누스 · 루스티쿠스 · 에픽테토스 · 무소니우스 · 테르툴리아누스 · 코모두스 · 르낭 · 로버트슨).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stayed ↔ fled, saddened ↔ overjoyed, share half ↔ eliminate, buried the head ↔ displayed it, never intended for publication ↔ written for readers, incapable of questioning slavery ↔ abolished it). 동사와 인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Marcus Aurelius the Philosopher King」 (192~204쪽)

전기형(철학자 왕의 꿈 → 가장 진실한 아이 → 하드리아누스의 계획 → 권력과 운명의 맞바람 → 권력의 절반과 역병과 국고 → 반란과 용서 → 울던 인간 → 『명상록』의 성찰 → 공동선과 덧없는 명성 → 완벽하지 않은 통치자 → 무소니우스와 에픽테토스의 꿈 → 상실과 퇴장). 핵심 축은 **권력(absolute power) vs 성품(character)**, 그리고 **타고남(natural perfection) vs 노력(work)**.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92 ¶1~¶4	도입	플라톤 이래의 꿈 · 망가진 왕 8명 · '자신들과 같은 바탕'의 지도자 / 121년 4월 26일 출생 · 매슈 아널드
192 ¶5~193 첫 줄	어린 시절	세 살에 아버지를 잃음 · 두 할아버지 · '베리시무스' / 10~11세 철학 · 땅바닥 잠 · 별칭 여섯 · 하드리아누스의 눈
193 ¶1~¶4	입양 계획	138년 2월 25일 · 안토니누스 피우스(50세) 입양의 조건 / 스승의 집으로 · 15명만 오른 자리 · 네로와 같은 길?
193 ¶5~¶7	상아 어깨	권력을 반기지 않음 · 왕들의 악행 / 망설임 ≠ 비겁 · 상아 어깨 꿈 / 19세 · 24세 집정관 · 161년 40세 황제
193 ¶8~194 첫 줄	더 나은 사람	스토아로만 설명 · 의식적인 노력 / '카이사르처럼 물들지 마라'
194 ¶1~¶3	맞바람	건강 · 26세 아버지 · 13명 중 5명 / 161~180 안토니누스 역병(15년 · 5백만) · 19년 전쟁 / 지킬 것은 성품
194 ¶4~¶5	황제와 노예	루스티쿠스가 준 에픽테토스 · 모순이 아님 / 우주의 작가가 준 배역
194 ¶6~195 첫 줄	권력의 절반	아리우스 · 세네카와 대비 / 루키우스 베루스 = 공동 황제 · 고르디우스의 매듭 · 조지 3세와 워싱턴
195 ¶1~¶2	역병과 국고	도시에 머묾 · 공습 때의 영국 왕실 / 세금 대신 황실 장식품을 팖 · '사는 집조차 여러분의 것'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95 ¶3~¶5	반란과 용서	아비디우스 카시우스 · 반란 = 기회 / 잘린 머리를 묻게 함 · 원로원 의원의 피 거부 / '좋은 사람이 되라'
196 ¶1~196 인용	울던 인간	타고난 바탕이라는 오해 · 헤로디아누스 / 스승 · 역병 희생자 때문에 울다 · 해로운 감정만 길들임 / 조지 마셜의 아내
197 ¶1~¶3	너도 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 인간에게 가능하면 너도 할 수 있다
197 ¶4~198 인용	자기에게 쓴 책	아침 · 저녁 성찰 · 『명상록』(167년 · '자기 자신에게') / 블랜샤드(1984) / '빚과 배움' 17항목 · 루스티쿠스
198 ¶3~199 ¶1	공동선 · 명성	2권의 아침 다짐 · '공동선' 80번 넘게 / 명성 = 혀와 손바닥 소리 · 알렉산드로스와 노새 몰이꾼
199 ¶2~¶4	잠시 자리를 채우는 사람	아퀸쿰의 머리 바꾸는 조각상 / 하드리아누스의 철필 · 분노를 억제
199 ¶5~200 ¶2	완벽하지 않은 통치자	기독교인 박해 · 노예제 · '야만인' · 코모두스 / 다른 통치자와 견주라 · 쓴 오이 · 링컨 · 르낭
200 ¶3~201 ¶4	무소니우스와 에픽테토스의 꿈	시리아 왕에게 한 말 · 좋은 사람만 좋은 왕 / 노예의 처지 개선 · 옳은 일을 하라
201 ¶5~202 ¶2	고요와 너그러움	갈레네 8번 · 도나우 12년 · '여덟!' · 800세스테르티우스 · 빚 문서 소각 /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 엄격 · 영혼이라는 쉼터
202 ¶3~204 ¶3	상실과 퇴장	149~169년의 상실 · 여덟 아이 / '다치지 않은 것이 행운' · 로버트슨의 향 / 세 막의 연극 · 180년 3월 17일 58세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앞선 황제들)	권력이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듯함(마르쿠스 · 스토아)
황제 자리 앞에서	갈망하고 기뻐함(대부분의 왕자)	슬퍼하고 망설이되 나아감(상아 어깨)
경쟁자 처리	없앰(아리우스의 조언 · 네로)	권력의 절반을 나눔(루키우스 베루스 공동 황제)
국고가 바닥났을 때	세금 · 약탈 · 빚 미루기(쉬운 길)	황실 장식품을 팖(어려운 길)
반란자	복수(원로원 의원의 피)	용서 · 관대함 · 잘린 머리를 묻게 함
스토아에 대한 인식	고통 · 욕망을 넘어선 특별한 바탕	울고 화내되 해로운 감정만 길들인 인간
글쓰기	독자를 위한 책 · 논문 · 설교	자신에게 쓴 책(ta eis heauton)
명성	박수와 환호 · 사후 명성	덧없고 공허함 · 성품에 비할 바가 못 됨
평가의 잣대	그 자신의 글 · 철학의 불가능한 기준	최고 권력을 쥔 다른 통치자들
엄격함의 방향	남을 자기 기준에 묶음(많은 뛰어난 지도자)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만 엄격
쉼	바닷가 · 산 · 서재로의 휴가	자기 영혼이라는 쉼터
불행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불운하다	다치지 않고 견뎠으니 다행이다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Marcus Aurelius	B. 121 AD – D. 180 AD · 출신 로마 · 발음 Au-REE-lee-us · 121년 4월 26일 출생 · 본명 마르쿠스 카틸리우스 세베루스 안니우스 베루스 · 그를 흠모한 매슈 아널드
망가진 왕 8명	카이사르 · 옥타비아누스 · 티베리우스 · 클라우디우스 · 네로 · 트라야누스 · 베스파시아누스 · 도미티아누스(192쪽 ¶2) — 목록은 제논 · 클레안테스 시대의 왕까지 거슬러 올라감
어린 시절	아버지 베루스 = 세 살 때 사망 · 두 할아버지가 키움 · 정직하다는 평판 · 하드리아누스의 별명 '베리시무스'(가장 진실한 아이) · 함께 멧돼지 사냥
10~11세	이미 철학에 빠짐 · 소박하고 거친 옷 · 땅바닥에서 잠 / 별칭 여섯 = 올곧음 · 겸손 · 솔직함 · 건전함 · 협력 · 사심 없음
Hadrian	아들 없음 · 그 자신도 후사 없던 트라야누스에게 선택됨 · 마르쿠스 17세 무렵 계획 · 138년 2월 25일 안토니누스 피우스 입양 · 몇 달 뒤 사망 / 비서의 눈을 철필로 찌름(처벌 없음)
Antoninus Pius	유능하고 믿음직한 50세 행정가 · 입양 조건 = 마르쿠스를 다시 입양 · 161년 사망 · '철학도 제국도 타고난 감정을 없애지 못한다' · 오만도 변명도 없이 안락을 다룸
15명 / 19 · 24 · 40세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로마에서 15명뿐 / 19세 집정관 · 24세 다시 집정관 · 161년 40세 황제 · 상아 어깨 꿈
가족	아내 파우스티나(35년) · 26세에 아버지가 됨 · 아이 13명 중 5명만 성인 · 잃은 아이 8명(아들 다섯 · 딸 셋, 아들은 하나만 남음 · 24장 180쪽 ¶8은 '일곱' — 원서 표기)
Antonine Plague	극동에서 시작 · 15년 동안 최소 **5백만** 명 · 치세 161~180 · 국경 전쟁 약 **19**년 · 로마에 머묾 · 10년 넘게 향 냄새(로버트슨)
Lucius Verus	양형제 · 하드리아누스의 유산과 더 가까움 · 공동 황제 · 169년 사망 / 대비: 아리우스 → 카이사리온, 세네카 → 네로
국고	황실 장식품을 광장(포룸)에서 금을 받고 팖 · 스스로 돌려준 사람에게만 값을 돌려줌(디오 카시우스) · '우리가 사는 집조차 여러분의 것'
Avidius Cassius	가장 믿던 장군 · 쿠데타 시도 · 암살자에게 죽음 · 잘린 머리를 묻게 함 · 협력자와 원로원 의원들에게 관대
기록한 사람들	디오 카시우스(행운을 누리지 못함 · 누구보다 잘 다스림) · 헤로디아누스(성품으로 증명) ·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스승의 죽음에 울음) · 테르툴리아누스(기독교인의 보호자)
Meditations	유일하게 알려진 저작 · 출판할 생각이 없었음 · 167년 · ta eis heauton('자기 자신에게') · 크리시포스 · 파나이티오스 · 제논 · 소크라테스 · 아리스토파네스 · 에픽테토스
Debts and Lessons	『명상록』 첫 부분 · **17**항목 · 약 **2,100**단어 · 책의 10퍼센트 · 할아버지 · 아버지 · 어머니 · 스승 · 신들 · 루스티쿠스
80 / 8	'공동선' 80번 넘게 · '갈레네'(고요) 8번 · '여덟!' = 8년 부재(두 손에 손가락 넷씩)
Aquincum	오늘날 부다페스트 근처 로마 진지 · 제2군단 · 『명상록』 일부를 썼다고 여겨짐 · 머리를 바꿔 끼우는 석회암 황제상
오점	기독교인 박해(그와 루스티쿠스의 얼룩) · 노예제 자체는 문제 삼지 못함 · '야만인'과의 전쟁 · 아우구스투스 이후 아들을 둔 두 번째 황제 · 코모두스
인용된 인물	조지 3세와 조지 워싱턴 · 조지 마셜의 아내 · 브랜드 블랜샤드(1984) · 에이브러햄 링컨 · 에르네스트 르낭(19세기 전기 작가) · 에우리피데스(사라진 희곡) · 도널드 로버트슨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Musonius / Epictetus	무소니우스 = 마르쿠스 출생 마흔 몇 해 전 시리아 왕에게 조언 · 다섯 황제에게 박해 · 좋은 사람만 좋은 왕 / 에픽테토스 = 루스티쿠스가 준 책 · 부러진 다리 이야기
노예	해방 노예의 권리 보호 · 노예의 상속 허용(안토니누스와 함께) · 노예 사형 금지 · 지나친 학대를 범죄로('전하는 바로는')
12년 / 800	제국 북쪽 국경 도나우강 가에서 약 12년 · 귀환 때 1인당 800세스테르티우스(가장 큰 선물) · 황제 개인 금고의 빚 문서를 광장에서 소각
상실 연표	149 쌍둥이 아들 · 151 맏딸 도미티아 파우스티나 · 152 티베리우스 아일리우스 안토니누스 · 누이 코르니피키아 · 어머니 도미티아 루킬라 · 158 이름 모르는 아들 · 161 안토니누스 피우스 · 165 티투스 아우렐리우스 풀부스 안토니누스 · 169 베루스 · 루키우스 베루스
180 AD	게르마니아 전장, 오늘날 빈 근처 · 아들을 떠나보냄 · 하루쯤 더 삶 · 3월 17일 · 58세 · '떠오르는 해에게 가라, 나는 이미 지고 있다'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Marcus Aurelius the Philosopher King」 (원서 PDF 192~204쪽) · 11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26-1 철학자 왕의 꿈, 가장 진실한 아이 192쪽 ¶1 ~ 19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92쪽 ¶1 ~ 19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2쪽 ¶1 첫 문장	the dream of wise men that one day there might be such a thing as a philosopher king	요지 후보: 장 전체의 물음
▲	192쪽 ¶1 둘째 문장	none of them had come close to wielding supreme command themselves	come close to -ing · 강조 재귀대명사
★	192쪽 ¶1 넷째 문장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빈칸·밑줄 의미 후보
★	192쪽 ¶2	Caesar. Octavian. Tiberius. Claudius. Nero. Trajan. Vespasian. Domitian.	인물 — 서답형 함정 후보
▲	192쪽 ¶3 둘째 문장	Just as the Christians had prayed for a savior, so too had the Stoics hoped	Just as ~, so too + 도치
◆	192쪽 ¶3 둘째 문장	a leader cut from their own cloth	밑줄 의미: 스토아와 같은 바탕의 지도자
★	192쪽 ¶4	born April 26, 121, ... Marcus Catilius Severus Annius Verus	숫자·이름 — 내용 일치 후보
★	192쪽 ¶5 둘째~셋째 문장	His father, Verus, died when he was three. He was raised by both his grandfathers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	192쪽 ¶5 다섯째 문장	who would have known young Marcus ..., sensing his potential, began to keep an eye on him	would have p.p.(추측) + 분사구문 삽입
◆	192쪽 ¶5 여섯째 문장	"Verissimus"—a play on his name Verus—the truest one	밑줄 의미 · 제목 후보
▲	192쪽 ¶6 첫 문장	What could it have been that Hadrian first noticed?	의문사 강조구문 + could have p.p.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2쪽 ¶7 첫 문장	By the time Marcus was ten or eleven, he had already taken to philosophy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192쪽 ¶7 둘째 문장	"epithets for yourself."	밑줄 의미: 스스로 붙이는 성품의 이름
▲	192쪽 ¶7 마지막 문장	He must have seen, as they hunted wild boar together, some combination of courage and calmness	must have p.p.(강한 추측)
▲	193쪽 첫 줄 둘째 문장	by Marcus's seventeenth birthday, Hadrian had begun planning	by + 시점 + 과거완료

내용

플라톤 이래, 언젠가 철학자 왕 같은 존재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현자들의 꿈이었다. 스토아는 몇 세기 동안 권력 가까이에 있었지만 누구도 스스로 최고 권력을 쥐는 데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들은 새 황제가 더 낫기를, 이번에는 귀를 기울이기를, 이번에는 자기 욕구보다 백성을 앞세우기를 거듭 바랐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트라야누스, 베스파시아누스, 도미티아누스. 결함 있고 망가진 왕들의 목록은 길어서, 로마를 지나 제논과 클레안테스 시대의 왕들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기독교인들이 구원자를 위해 기도했듯, 스토아도 언젠가 자신들과 같은 바탕의 지도자가 태어나 제국을 쇠퇴와 타락에서 구해 내기를 바랐다. 121년 4월 26일에 태어난 이 별의 이름은 마르쿠스 카틸리우스 세베루스 안니우스 베루스였다. 그를 크게 흠모한 매슈 아널드의 말을 빌리면, 그는 불가능한 기대와 책임 속에서도 그 모든 것에 걸맞은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낸다. 훗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될 소년의 어린 시절은 상실과 가능성으로 정의되었다. 아버지 베루스는 그가 세 살 때 죽었다. 그는 그를 무척 아끼고 궁정에서 분명 자랑하고 다닌 두 할아버지 손에 자랐고, 어려서부터 정직하다는 평판을 얻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아마 어린 마르쿠스의 이른 학업 성취를 통해 그를 알았을 것이고, 그의 가능성을 느끼고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함께 사냥하기를 좋아한 이 소년에게 황제가 붙인 별명은 '베리시무스', 곧 그의 이름 베루스를 비튼 '가장 진실한 아이'였다. 하드리아누스가 처음 알아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르쿠스는 분명 영리하고 좋은 집안 출신에 잘생기고 부지런했다. 그러나 로마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진실한' 십 대도 많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좋은 국가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열 살이나 열한 살 무렵 마르쿠스는 이미 철학에 빠져, 소박하고 거친 옷차림으로 철학자 행색을 하고 절제된 습관으로 살았으며 몸을 단련하려고 땅바닥에서 자기까지 했다. 그는 훗날 자신을 규정하려 애쓴 성품을 '너 자신을 위한 별칭'이라 부르며 적었다. 올곧음, 겸손, 솔직함, 건전함, 협력, 사심 없음. 아들이 없어 후계자를 고르려 생각하기 시작한 하드리아누스는(그 자신도 후사가 없던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선택되었다) 소년 시절부터 마르쿠스에게서 이런 생각에 대한 헌신을 느꼈음이 틀림없다. 함께 멧돼지를 사냥하며 그는 용기와 침착함, 연민과 단호함이 어우러진 무언가를 보았음이 틀림없다. 마르쿠스 자신도 아마 보지 못했을 무언가를 그의 영혼에서 보았음이 틀림없다. 마르쿠스가 열일곱 살이 될 무렵 하드리아누스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법

- **Since Plato, it had been the dream of wise men that one day there might be such a thing as a philosopher king.** : Since + 과거 시점 → 과거완료 had been(그때까지 이어진 꿈).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such a thing as = ~ 같은 것.
- **none of them had come close to wielding supreme command themselves** : come close to + 동명사(to는 전치사) = ~하는 데 가까이 가다. themselves = 강조 재귀대명사(그들 스스로).

- **Time and time again they had hoped the new emperor would be better, that this one would listen, that this one would put the people before his own needs.** : hoped의 목적어 that절 셋이 병렬(첫 that은 생략).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put A before B = A를 B보다 앞세우다.
- **Just as the Christians had prayed for a savior, so too had the Stoics hoped that one day a leader cut from their own cloth would be born** : Just as ~, so (too) + 조동사 + 주어 도치 = ~했듯이 …도 그랬다. cut = a leader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같은 천에서 잘라 낸 = 같은 바탕의).
- **The emperor Hadrian, who would have known young Marcus through his early academic accomplishments, sensing his potential, began to keep an eye on him.** : 주어 Hadrian과 동사 began 사이에 계속적 who절과 분사구문 sensing ~이 끼었다. would have p.p. = 저자의 추측(알았을 것이다). keep an eye on = 눈여겨보다.
- **His nickname for Marcus, whom he liked to go hunting with, was "Verissimus"** : whom = 문장 끝 전치사 with의 목적어(he liked to go hunting with Marcus). 주어 His nickname(단수) → was.
- **What could it have been that Hadrian first noticed?** : It could have been X that Hadrian first noticed(강조구문)에서 X를 의문사 What으로 물은 꼴. could have p.p. = 과거에 대한 추측.
- **He must have seen something in his soul that Marcus likely could not even see himself** : must have p.p. = ~했음이 틀림없다(강한 추측). that = something을 받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likely = 아마(추측 부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wield	(권력을) 휘두르다	exercise	—
supreme	최고의	highest	lowest
corrupt (v.)	타락시키다	deprave	purify
flawed	결함 있는	defective	flawless
redeem	구해 내다	save	condemn
decay	쇠퇴	decline	growth
dote on	무척 아끼다	adore	neglect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promise	—
humble	소박한, 수수한	modest	showy
sober	절제된	restrained	self-indulgent
toughen	단련하다	harden	soften
epithet	별칭	nickname	—
disinterested	사심 없는	impartial	biased

내용 일치 철학자 왕 = 플라톤 이래 현자들의 꿈 · 스토아 누구도 최고 권력을 쥔 적 없음 · 망가진 왕 8명(카이사르~도미티아누스) · 121년 4월 26일 출생 · 본명 마르쿠스 카틸리우스 세베루스 안니우스 베루스 · 매슈 아널드(그를 흠모함) · 아버지 베루스 = 세 살 때 사망 · 두 할아버지가 키움 · 정직하다는 평판 · 하드리아누스가 그를 안 경로는 '아마' 학업 성취 · 별명 '베리시무스' · 10~11세에 철학 · 땅바닥에서 잠 · 별칭 여섯 · 하드리아누스 = 아들 없음, 트라야누스에게 선택됨 · 17세 무렵 계획. **밑줄 의미**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 황제는 하나같이 권력에 망가졌다 / cut from their own cloth = 스토아와 같은 바탕(철학)으로 빚어진 / Verissimus = 이름 베루스를 비튼 '가장 진실한 아이' / epithets for yourself = 스스로 그렇게 불리고자 한 성품의 이름.

한 줄 요약 철학자 왕을 바라던 스토아의 오랜 꿈 끝에 태어난 마르쿠스는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철학에 몸을 던진 소년이었고, 아들이 없던 하드리아누스는 그에게서 남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26-2 자줏빛 옷으로 가는 길, 상아 어깨의 꿈 193쪽 ¶1 ~ ¶7

원문 위치 원서 193쪽 ¶1 ~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He was going to make Marcus Aurelius the emperor of Rome.	한 문장 단락 = 앞의 something extraordinary
▲	¶2 첫 문장	We don't know much about Hadrian's stated reasons, but we know about the plan	기록의 한계(이유를 단정하지 말 것)
★	¶2 둘째 문장	On February 25, 138, … fifty-year-old … Antoninus Pius on the condition that he in turn adopt	숫자·인물 — 내용 일치 1순위
▲	¶2 넷째 문장	A course of successive offices laid out.	be동사 생략(was laid out)
★	¶2 다섯째 문장	he still went to the residences of his philosophy teachers	내용 일치 후보
▲	¶2 다섯째 문장	though he could have just as easily demanded they come to him	could have p.p. + demand (that) S 원형
▲	¶2 여섯째 문장	as if his means and his status had not irrevocably improved	as if + 과거완료
★	¶3 둘째 문장	a position that only fifteen people had ever held in Rome	숫자 — 서답형 후보
◆	¶3 둘째 문장	he was to wear the purple	밑줄 의미: 황제가 되다
◆	¶4	not an altogether dissimilar path to the one that Nero's mother had charted	18 · 25장 연결 · 통합 사고 후보
●	¶5 둘째 문장	he was greatly saddened rather than overjoyed	반전 후보 → overjoyed
▲	¶5 셋째 문장	Perhaps that's because he would have rather been a writer or a philosopher	would rather have p.p. · Perhaps(추측)
▲	¶5 다섯째 문장	dismayed at having to leave his mother's house	전치사 at + 동명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 첫 문장	Reservations are not the same thing as cowardice.	요지 후보
◆	¶6 다섯째 문장	he had shoulders made of ivory	밑줄 의미: 짐을 감당할 단단한 어깨
★	¶7	At age nineteen ... At age twenty-four ... In 161, at age forty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내용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로마의 황제로 만들 작정이었다. 하드리아누스가 밝힌 이유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정한 계획은 알려져 있다. 138년 2월 25일 하드리아누스는 유능하고 믿음직한 쉰 살의 행정가 안토니누스 피우스를 입양하면서, 그가 다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입양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스승들이 정해졌고, 차례로 밟아 갈 공직의 길이 짜였다. 전하는 바로는, 황실의 일원이 된 뒤에도 마르쿠스는 스승들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철학 스승들의 집으로 찾아가 배웠다. 그는 재산과 지위가 돌이킬 수 없이 높아진 적이 없다는 듯 계속 살았다. 몇 달 뒤 하드리아누스가 죽을 무렵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마르쿠스는 로마에서 지금까지 열다섯 명만 차지한 자리, 곧 자줏빛 옷을 입고 카이사르가 될 자리를 위해 길러지게 된다. 네로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려 준 길과 아주 다르지는 않은 길이었다. 결과는 다를까. 대부분의 왕자와 달리 마르쿠스는 권력을 갈망하지 않았다. 전하는 바로는, 하드리아누스에게 공식적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원서 표기)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크게 슬퍼했다. 아마 차라리 작가나 철학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망설임에는 진지함이 있었다. 한 고대 역사가는 마르쿠스가 어머니의 집을 떠나 궁으로 가야 한다는 데 낙담했다고 적는다. 그토록 엄청난 행운 앞에서 왜 풀이 죽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왕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을 늘어놓았다. 망설임은 비겁함과 같지 않다. 가장 자신감 있는 지도자, 곧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흔히 자기가 그 일을 충분히 잘해 내지 못할까 걱정한다.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일에 뛰어든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나아간다. 이 무렵 마르쿠스는 자기 어깨가 상아로 되어 있는 꿈을 꾸었다. 그에게 그것은 징조였다. 그는 해낼 수 있었다. 열아홉 살에 마르쿠스는 나라 최고의 관직인 집정관이 되었고, 스물네 살에 다시 그 자리에 올랐다. 161년 마흔 살에 그는 황제가 되었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와 베스파시아누스와 그 밖의 수많은 괴물이 차지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어법

- **Hadrian adopted ... Antoninus Pius on the condition that he in turn adopt Marcus Aurelius.** : on the condition that + S + 동사원형(가정법 현재 — 조건 · 요구). he = Antoninus Pius. in turn = 이번에는 그가 차례로.
- **Tutors were selected. A course of successive offices laid out.** : 둘째 문장은 was가 생략된 수동문(A course ... was laid out). 짧은 두 문장이 짝을 이룬다.
- **though he could have just as easily demanded they come to him** : could have p.p. =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만) ~할 수도 있었다. demand (that) S + 원형(come) — that 생략, 가정법 현재.
- **He continued to live as if his means and his status had not irrevocably improved.** : as if + 과거완료 = 실제로는 높아졌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continue to V.
- **Marcus Aurelius was to be groomed for a position that only fifteen people had ever held in Rome** : be to V = 예정 · 운명(~하게 되어 있었다) + 수동 to be groomed. had held = 그때까지의 경험(과거완료).
- **It was not an altogether dissimilar path to the one that Nero's mother had charted for her boy.** : not altogether = 완전히 ~한 것은 아닌(부분 부정) + dissimilar → 아주 다르지는 않은(꽤 비슷한). the one = path.
- **Perhaps that's because he would have rather been a writer or a philosopher.** : would rather have p.p. = 차라리 ~이었기를 바랐을 것이다 — 원서는 rather를 have 뒤에 두었다. Perhaps = 저자의 추측.

- **When asked by someone why he was downcast about such an incredible bounty of fortune, he listed all the evil things that kings had done.** : When (he was) asked = 접속사 뒤 주어 + be동사 생략. why절 = 간접의문문 어순(why he was). such + a + 형용사 + 명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ble	유능한	capable	incompetent
trustworthy	믿음직한	reliable	untrustworthy
successive	연속하는	consecutive	—
irrevocably	되돌릴 수 없게	irreversibly	reversibly
groom (v.)	(자리에 맞게) 기르다	train	—
chart (v.)	(길을) 계획하다	plan	—
yearn for	갈망하다	crave	—
earnestness	진지함	sincerity	frivolity
reticence	망설임, 내켜 하지 않음	reluctance	eagerness
dismayed	낙담한	disheartened	delighted
downcast	풀이 죽은	dejected	cheerful
bounty	풍성한 선물	abundance	scarcity
reservation	망설임, 의구심	doubt	confidence

내용 일치 하드리아누스가 밝힌 이유 = 잘 모름 · 138년 2월 25일 · 안토니누스 피우스(유능 · 믿음직 · 50세) · 조건 = 마르쿠스를 다시 입양 · 황실의 일원이 된 뒤에도 스승의 집으로 찾아감 · 몇 달 뒤 하드리아누스 사망 · 그 자리에 오른 사람 = 15명 · 입양 소식에 슬퍼함('전하는 바로는') · 작가나 철학자가 되고 싶었을 '수도' · 상아 어깨 꿈 = 징조 · 집정관 19세 · 24세 · 161년 40세 황제. ¶5의 '하드리아누스에게 입양' = 원서 표기(¶2의 계획은 안토니누스가 마르쿠스를 입양). **밑줄 의미** wear the purple = 황제가 되다 / not an altogether dissimilar path = 네로가 걸은 길과 꽤 비슷한 길(그래서 결과가 다를지 묻는다) / shoulders made of ivory = 무거운 짐을 견딜 단단한 어깨, 해낼 수 있다는 징조 / Reservations are not … cowardice = 망설인다고 겁쟁이는 아니다.

> **한 줄 요약** 하드리아누스의 계획에 따라 황제의 길에 들어선 마르쿠스는 권력을 반기기는커녕 슬퍼했지만, 상아 어깨의 꿈을 징조 삼아 나아갔고 161년 마흔 살에 황제가 되었다.

26-3 카이사르처럼 물들지 마라, 황제와 노예의 철학 193쪽 ¶8 ~ 194쪽 ¶5

원문 위치 원서 193쪽 ¶8 ~ 194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3쪽 ¶8 첫 문장	Being chosen to be king—having enormous power thrust upon him ...—somehow seems to have made	동명사 주어 + seem to have p.p.
◆	193쪽 ¶8 둘째 문장	how one man did not go the way of all kings	밑줄 의미: 권력에 망가지는 왕들의 길을 가지 않음
★	193쪽 ¶8 둘째 문장	can only be explained by one thing: Stoicism	빈칸 후보
▲	193쪽 ¶9 첫 문장	it would be an injustice to Marcus Aurelius not to give him the full credit	가주어 it + not to V
★	193쪽 ¶9 셋째 문장	"malice, cunning and hypocrisy that power produces"	내용 일치 후보
◆	193쪽 ¶9 넷째 문장	"Take care not be Caesarified, or dyed in purple"	밑줄 의미 1순위
▲	194쪽 첫 줄 둘째 문장	Strive hard to remain the same man that philosophy wished to make you.	make + O + 보어 · 관계대명사 that
◆	194쪽 ¶1 첫 문장	It wasn't just the headwind of power	강조구문 · 밑줄 의미: 권력이라는 맞바람
★	194쪽 ¶1 셋째 문장	He became a father at age twenty-six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194쪽 ¶1 다섯째~여섯째 문장	Faustina, would have thirteen children. Only five would survive	숫자 — 서답형 후보
★	194쪽 ¶2 첫 문장	from 161 to 180 ... at least five million people over fifteen years ... nineteen years of wars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	194쪽 ¶3 셋째 문장	What we need to protect is our character	요지 · 빈칸 1순위
★	194쪽 ¶4 첫 문장	the copy of Epictetus that Junius Rusticus had given him	24 · 25장 연결 · 서답형 후보
▲	194쪽 ¶4 둘째 문장	the latter figure greatly influencing the former	독립분사구문 · the latter ↔ the former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4쪽 ¶4 셋째 문장	It's only in ... that we have forgotten	강조구문(only + 부사구)
◆	194쪽 ¶5 첫 문장	assigned difficult roles by the author of the universe	24장 연결 · 밑줄 의미

내용

왕으로 뽑힌 것, 그토록 이른 나이에 엄청난 권력을 떠안은 것이 어찌 된 일인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듯하다. 인류 역사에서 전혀 예외적인 이 일, 곧 한 사람이 모든 왕이 간 길을 가지 않은 일은 오직 하나, 스토아 철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들여야 했던 노력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부당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었다. 그는 권력이 낳는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 그리고 '좋은 집안' 출신에게서 흔히 보이는 유별난 무자비함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고, 자신은 그 법칙의 예외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노인이 되어서도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썼다. 카이사르처럼 되지 않도록, 자줏빛으로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일은 일어난다. 그러니 소박하고 선하고 순수하고 진지하고 꾸밈없고, 정의의 친구이자 신을 두려워하고 친절하고 애정이 넘치며 마땅한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너를 지켜라. 철학이 너를 만들고자 한 바로 그 사람으로 남도록 힘써라. 그가 삶에서 맞선 것은 권력이라는 맞바람만이 아니었다. 편지를 보면 그는 되풀이되는 고통스러운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다. 스물여섯 살에 아버지가 되었는데, 누구에게나 사람을 바꾸어 놓는 힘든 경험이다. 그러나 마르쿠스의 경우 운명은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했다. 그와 아내 파우스티나는 열세 명의 아이를 두었지만 다섯만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 161년부터 180년까지의 치세에는 안토니누스 역병, 곧 극동에서 시작해 국경을 가리지 않고 퍼지며 15년 동안 적어도 5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세계적 유행병과, 약 19년의 국경 전쟁이 이어졌다. 역사가 디오 카시우스는 마르쿠스가 몸이 튼튼하지 못했고 치세 거의 내내 수많은 곤경에 휘말려, 마땅히 누려야 할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고 쓴다. 그러나 이런 바깥의 일은 스토아를 막지 못한다. 마르쿠스는 역병과 전쟁이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뿐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성품, 곧 전쟁과 역병과 삶의 다른 좌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그리고 성품을 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악이다. 유니우스 루스티쿠스가 건넨 에픽테토스의 책이 마르쿠스에게 그토록 깊이 와닿은 것은 아마 두 사람 모두 운명에게 혹독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황제와 노예가 같은 철학을 나누고 사랑하며 노예가 황제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놀라운 대비이지만 모순은 아니며, 고대인들에게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권력을 가졌든 아니든 우리가 운명 앞에 똑같이 벌거벗고 무방비하다는 것,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지녔는지를 잊은 것은 오직 '특권'에 매달리는 오늘날의 반동적이고 분열적인 시각 때문이다. 에픽테토스의 비유를 빌리면, 마르쿠스와 에픽테토스는 둘 다 우주의 작가에게 어려운 배역을 받았다. 두 사람을 규정한 것은 둘 중 누구도, 특히 마르쿠스는 결코 고르지 않았을 그 배역을 어떻게 연기해 냈느냐였다.

어법

- **Being chosen to be king—having enormous power thrust upon him at so early an age—somehow seems to have made Marcus Aurelius a better person.** : 동명사구 주어 → 단수 seems. 대시 사이 동명사구는 주어를 고쳐 말한 동격. have + O + p.p.(power thrust upon him). seem to have p.p. = 앞선 일에 대한 추측. so + 형용사 + a + 명사.
- **This utterly anomalous event in human history—how one man did not go the way of all kings—can only be explained by one thing: Stoicism.** : 대시 사이 how절 = event의 내용을 풀어 쓴 동격. can only be p.p. = 오직 ~로만 설명될 수 있다. 콜론 뒤 Stoicism = one thing.
- **it would be an injustice to Marcus Aurelius not to give him the full credit due for the work he had to put in** : 가주어 it – 진주어 not to give ~(to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to 앞에). due = credit을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마땅히 줘야 할). the work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Take care not be Caesarified, or dyed in purple,"** : 원서 인용은 not be로 적었다(to가 빠진 표기). 원칙은 take care not to V = ~하지 않도록 조심하다. dyed in purple = (not to be) dyed — 수동의 과거분사가 병렬.
- **Strive hard to remain the same man that philosophy wished to make you.** :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 make you the same man(make + O + 보어)에서 보어 the same man이 선행사로 나갔다. remain + 보어.
- **It wasn't just the headwind of power that Marcus faced in life.** : It was ~ that 강조구문(강조 대상 = the headwind of power). not just A = A만이 아니다 → 뒤에 건강 · 가족 · 역병이 이어진다.
- **an emperor and a slave sharing and loving the same philosophy, the latter figure greatly influencing the former** : an emperor and a slave ~ = a striking contrast의 내용(동격). the latter(후자 = 노예 에픽테토스)가 the former(전자 = 황제 마르쿠스)에게 영향 — 의미상 주어가 있는 독립분사구문.
- **but it is not a contradiction—nor would it have seemed odd to the ancients** : 부정어 nor가 앞으로 → 조동사 would + 주어 it 도치. would have p.p. = 과거에 대한 추측.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nomalous	예외적인	abnormal	normal
deliberate	의도적인	intentional	accidental
malice	악의	spite	goodwill
cunning (n.)	교활함	craftiness	candor
hypocrisy	위선	insincerity	sincerity
ruthlessness	무자비함	cruelty	mercy
unpretentious	꾸밈없는	modest	pretentious
headwind	맞바람	—	tailwind
recurring	되풀이되는	repeated	—
pandemic	세계적 유행병	epidemic	—
deter	막다, 단념시키다	discourage	encourage
contradiction	모순	inconsistency	consistency
defenseless	무방비의	vulnerable	protected

내용 일치 권력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듯' · 설명 = 스토아 철학 · 노력은 의식적 · 의도적 · 노인이 되어서도 '카이사르처럼 물듦'을 경계 · 건강 문제(편지) · 26세에 아버지 · 아내 파우스티나 · 아이 13명 중 5명만 성인 · 치세 161~180 · 안토니누스 역병 = 극동에서 시작 · 15년 · 최소 5백만 명 · 국경 전쟁 약 19년 · 디오 카시우스 · 지켜야 할 것 = 성품 · 루스티쿠스가 준 에픽테토스의 책(깊이 와닿은 이유는 '아마') · 황제와 노예 = 모순 아님. **지칭** 193쪽 ¶9 that rule = 권력이 사람을 망친다는 법칙 / it happens의 it = 카이사르처럼 물드는 일 / 194쪽 첫 줄 you = 마르쿠스 자신 / 194쪽 ¶4 the latter = 노예 에픽테토스, the former = 황제 마르쿠스 / ¶5 these roles = 우주의 작가가 준 어려운 배역, neither of them = 마르쿠스와 에픽테토스.

> **한 줄 요약** 권력과 병과 아이들의 죽음과 역병이 한꺼번에 덮쳤지만, 마르쿠스는 지켜야 할 것은 성품뿐이라 믿고 카이사르처럼 물들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애썼으며, 노예 에픽테토스의 철학에서 같은 길을 찾았다.

26-4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다, 궁의 보물을 팔다 194쪽 ¶6 ~ 195쪽 ¶2

원문 위치 원서 194쪽 ¶6 ~ 195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4쪽 ¶6 첫 문장	the first action … in 161 AD when his adoptive father, Antoninus Pius, died	연도 — 내용 일치 후보
◆	194쪽 ¶6 셋째 문장	"It's not good to have too many Caesars,"	16장 연결 · 아리우스의 조언
▲	194쪽 ¶6 셋째 문장	joking as he suggested murder	분사구문 + 접속사 as
▲	194쪽 ¶6 넷째 문장	so many rivals that Seneca had to remind him that	so ~ that 결과 + remind + O + that
★	194쪽 ¶6 여섯째 문장	an adoptive brother, Lucius Verus, who had even closer ties to Hadrian's legacy	인물 — 서답형 후보
▲	194쪽 ¶6 일곱째 문장	What ought he do?	ought (to) — 의문문의 to 생략
◆	194쪽 ¶7	cut this Gordian knot with effortlessness and grace	밑줄 의미 1순위
★	194쪽 ¶7	He named his adoptive brother co-emperor.	내용 일치 1순위 · name + O + 보어
◆	194쪽 ¶8 첫 문장	The first thing Marcus Aurelius did with absolute power was voluntarily share half of it.	요지 후보 · 원형부정사 보어
★	195쪽 첫 줄	King George III … George Washington would return to private life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195쪽 ¶1 첫 문장	no one would have faulted him for fleeing the city	반전 후보 → fled
▲	195쪽 ¶1 셋째 문장	braving it like the British royal family during the Blitz, never showing fear, reassuring	분사구문 셋 병렬
▲	195쪽 ¶2 둘째 문장	He could have levied … looted … kicked the can down the road	could have p.p. 셋 — 하지 않은 선택지
◆	195쪽 ¶2 둘째 문장	kicked the can down the road	밑줄 의미: 문제를 뒤로 미루다
★	195쪽 ¶2 셋째 문장	took all the imperial ornaments to the Forum and sold them for gold	삽입 · 순서 후보
◆	195쪽 ¶2 여섯째 문장	even the house in which we live is yours	요지 후보: 나라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용

161년 양아버지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죽었을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첫 행동을 생각해 보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의 스토아 조언자 아리우스 디디무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어린 카이사리온을 없애라고 권했다. 이 스토아는 '카이사르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농담하며 살인을 제안했다. 네로는 경쟁자를 너무 많이 없애서, 세네카는 어떤 왕도 모든 후계자를 없앨 힘은 없다고 그에게 일깨워야 했다. 마르쿠스는 그보다 더 복잡한 처지에 놓였다. 하드리아누스의 유산과 더 가까이 이어진 양형제 루키우스 베루스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마르쿠스는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힘들이지 않고 우아하게 끊었다. 양형제를 공동 황제로 세운 것이다. 마르쿠스가 절대 권력으로 한 첫 일은 스스로 그 절반을 나누는 것이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조지 워싱턴이 사생활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조지 3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느낀 것과 같은 경외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는 그의 치세를 규정한 여러 행동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안토니누스 역병이 로마를 덮쳐 거리에 시신이 널리고 공기에 위험이 감돌 때, 그가 도시를 떠났더라도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편이 더 신중한 처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머물렀다. 공습 때의 영국 왕실처럼 그것을 견디며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자기 안전을 직무의 책임보다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확인시켰다. 훗날 역병의 참화와 끝없는 전쟁으로 로마의 국고가 바닥났을 때, 마르쿠스는 다시 쉬운 길과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했다. 세금을 무겁게 매길 수도, 속주를 약탈할 수도, 후임자들이 떠안을 빚을 쌓으며 문제를 뒤로 미룰 수도 있었다. 그러나 디오 카시우스에 따르면 마르쿠스는 황실의 장식품을 모두 광장(포룸)으로 가져가 금을 받고 팔았다. 야만족의 봉기가 진압되자 그는 황실 물건을 스스로 돌려준 사람들에게 값을 되돌려 주었지만, 그러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황제로서 그는 형식상 로마의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원로원에서 자기 가족을 두고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기는커녕 우리가 사는 집조차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어법

- **Arius Didymus, his Stoic advisor, had suggested that he get rid of young Caesarion** : suggest (that) + S + 원형(get) = 제안의 가정법 현재. had suggested = 대과거(마르쿠스보다 앞선 일). he = Octavian.
- **"It's not good to have too many Caesars," the Stoic had told his boss, joking as he suggested murder.** : 가주어 it – 진주어 to have. joking = 분사구문(동시 동작). as = ~하면서.
- **Nero had eliminated so many rivals that Seneca had to remind him that no king had it in his power to get rid of every successor.** : so ~ that 결과절. remind + O + that절. have it in one's power to V = ~할 힘이 있다(it = 가목적어, to get rid of ~ = 진목적어).
- **What ought he do? What would you do?** : ought to의 의문문은 What ought he to do?가 원칙인데, 원서는 의문사 뒤에서 to를 뺀 구어체로 썼다. 둘째 물음은 독자에게 직접 던진다.
- **He named his adoptive brother co-emperor.** : name + O + 명사 보어 = O를 ~로 세우다(5형식). 직책 · 지위를 나타내는 보어 co-emperor는 관사 없이 쓴다.
- **The first thing Marcus Aurelius did with absolute power was voluntarily share half of it.** : 주어에 do(did)가 있으면 보어로 원형부정사(share)를 쓸 수 있다. thing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it = absolute power.
- **no one would have faulted him for fleeing the city. In fact, it might have been the more prudent course of action.** : would have p.p. = (떠났더라도) 탓하지 않았을 것이다(가정의 귀결). fault A for -ing. might have p.p. = ~였을지도 모른다(약한 추측).
- **"we are so far from possessing anything of our own that even the house in which we live is yours."** : so far from -ing that ~ =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다. of one's own = 자기 소유의.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live in the hous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doptive	입양으로 맺어진	adopted	biological
eliminate	없애다	remove	—
legacy	유산	heritage	—
Gordian knot	고르디우스의 매듭(풀기 어려운 문제)	dilemma	—
voluntarily	자발적으로	willingly	forcibly
awe	경외	reverence	contempt
fault (v.)	탓하다	blame	excuse
prudent	신중한	sensible	reckless
brave (v.)	(위험을) 견뎌 내다	face	flee
ravages	참화	devastation	—
levy	(세금을) 부과하다	impose	—
loot	약탈하다	plunder	—
unfettered	제약 없는	unrestricted	restricted

내용 일치 161년 안토니누스 피우스 사망 · 아리우스 디디무스 → 옥타비아누스에게 카이사리온(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을 없애라 · 세네카 → 네로에게 모든 후계자를 없앨 수는 없다 · 루키우스 베루스 = 양형제, 하드리아누스의 유산과 더 가까움 → 공동 황제 · 조지 3세와 조지 워싱턴 · 역병 때 로마에 머묾(떠나는 편이 더 신중했을 '수도') · 국고 고갈 → 황실 장식품을 광장에서 금을 받고 팖(디오 카시우스) · 봉기 진압 뒤 스스로 돌려준 사람에게만 값을 돌려줌, 강요 없음 · '우리가 사는 집조차 여러분의 것'(원로원). **밑줄 의미** cut this Gordian knot =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깔끔하게 해결했다 / share half of it = 절대 권력의 절반을 스스로 내줌 / kicked the can down the road = 빚을 후임자에게 떠넘기며 문제를 미룸 / even the house ... is yours = 황제 가족의 집도 나라(원로원)의 것.

> **한 줄 요약** 마르쿠스는 절대 권력의 절반을 양형제와 나누어 후계의 매듭을 풀었고, 역병 속에도 로마에 머물렀으며, 국고가 비자 세금 대신 황실의 장식품을 팔았다.

26-5 반란을 기회로, 좋은 사람이 되어라 195쪽 ¶3 ~ 196쪽 ¶2

원문 위치 원서 195쪽 ¶3 ~ 196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5쪽 ¶3 첫 문장	Avidius Cassius, his most trusted general, turned on him, attempting a coup	인물 — 서답형 1순위 · 지칭 후보
▲	195쪽 ¶3 첫 문장	when it came to honor, honesty, compassion, generosity, and dignity	when it comes to + 명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5쪽 ¶3 둘째 문장	He had every right to be angry.	every + 추상명사
◆	195쪽 ¶4 첫 문장	Marcus decided the attempted coup was an opportunity	요지 후보: 반란 = 기회
▲	195쪽 ¶4 셋째 문장	"to forgive a man who has wronged one, to remain a friend to one who has transgressed friendship	to부정사 병렬 · 일반인 one
▲	195쪽 ¶4 넷째 문장	hoping almost certainly to impress himself to Marcus	분사구문 + 추측 부사
◆	195쪽 ¶4 넷째 문장	how different a plane Marcus Aurelius was operating on	밑줄 의미: 전혀 다른 차원
★	195쪽 ¶4 다섯째 문장	he could not bring himself even to look at the severed head	내용 일치 1순위
▲	195쪽 ¶4 다섯째 문장	gave orders that it should be buried	명령의 that절 + should
★	195쪽 ¶4 여섯째 문장	treat each of Avidius's collaborators with leniency, including several senators	내용 일치 후보
▲	195쪽 ¶4 일곱째 문장	to keep my reign unstained by the blood of any senator	keep + O + 형용사 보어
◆	195쪽 ¶5 첫~둘째 문장	"Do the right thing. The rest doesn't matter."	요지 · 빈칸 후보
◆	195쪽 ¶5 셋째~넷째 문장	"Waste no more time talking about what a good man is like. Be one."	빈칸 1순위 · one = a good man
▲	196쪽 ¶1 첫 문장	made of special stock that made his many difficult decisions easier	make + O + 형용사 비교급
●	196쪽 ¶1 둘째 문장	the Stoics were beyond pain, beyond material desire	반전 후보 → 흔한 오해
★	196쪽 ¶2 둘째 문장	"Alone of the emperors," the historian Herodian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내용

마침내 삶의 끝 무렵, 가장 믿던 장군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그에게 등을 돌려 쿠데타를 꾀하자, 마르쿠스는 명예와 정직과 연민과 너그러움과 품위에 관해 자신이 믿은 모든 것을 다시 시험받았다. 그는 화를 낼 권리가 충분했다. 놀랍게도 마르쿠스는 이 쿠데타 시도를 기회로 여겼다. 그는 병사들에게, 나가서 이 일을 잘 수습하고 내전조차 바르게 다루는 길이 있음을 온 인류에게 보여 주자고 말했다. 그것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우정을 어긴 사람에게 친구로 남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에게 신의를 지킬 기회였다. 곧 한 암살자가 아비디우스를 쓰러뜨렸는데, 거의 틀림없이 마르쿠스에게 잘 보이려는 속셈이었고, 그 과정에서 마르쿠스가 얼마나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디오 카시우스에 따르면 마르쿠스는 카시우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해 잘린 적의 머리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고,

살해자들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것을 묻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어서 아비디우스에게 협력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너그럽게 대했는데, 이 쿠데타를 적극 지지한 원로원 의원 몇 명도 포함되었다. 그를 위해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훗날, 원로원이여, 내 치세가 어떤 원로원 의원의 피로도 더럽혀지지 않게 해 달라,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삶과 지도력에서 그의 신조는 단순하고 분명했다. 옳은 일을 하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느라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의 말(그리고 그 말대로 산 삶)보다 스토아 철학을 더 잘 드러내고 구현한 것은 없다. 그러나 마르쿠스의 삶을 공부하다 보면 그가 어딘가 남달랐다는, 어려운 결정들을 쉽게 만들어 준 특별한 바탕을 타고났다는 인상을 받는다. 스토아 철학에 대한 흔한 인식, 곧 스토아는 고통도 물질적 욕망도 육체의 욕구도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이 인상을 더 키운다. 그러나 마르쿠스라면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지려 애쓰며 그가 겪은 훈련과 분투를 깎아내리기 때문이다. 역사가 헤로디아누스는 황제들 가운데 오직 그만이 말이나 철학 이론의 지식이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성품과 절제된 생활로 배움을 증명했다고 쓴다.

어법

- **Marcus Aurelius was faced with another test of all the things he believed when it came to honor, honesty, compassion, generosity, and dignity.** : be faced with = ~에 직면하다. things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when it comes to + 명사 = ~에 관해서라면(to는 전치사).
- **He had every right to be angry.** : every + 추상명사(right) = 충분한, 온갖. right to V = ~할 권리(형용사적 to 부정사).
- **It was a chance "to forgive a man who has wronged one, to remain a friend to one who has transgressed friendship, to continue faithful to one who has broken faith."** : chance를 꾸미는 to부정사 셋이 병렬. one = 일반인(사람). continue + 형용사 보어(faithful) = 계속 ~한 상태로 있다.
- **An assassin would soon enough take down Avidius, hoping almost certainly to impress himself to Marcus, and in the process revealing just how different a plane Marcus Aurelius was operating on.** : 분사구문 hoping과 revealing이 and로 병렬. how + 형용사 + a + 명사 간접의문문 — 끝의 on은 operate on a plane의 전치사. almost certainly = 저자의 추측.
- **he could not bring himself even to look at the severed head of his enemy, but before the murderers drew near gave orders that it should be buried** : bring oneself to V = 마음먹고 ~하다(부정문 = 차마 ~하지 못하다). orders that + S + (should) 원형 = 명령의 내용. it = the severed head.
- **"I implore you, the senate, to keep my reign unstained by the blood of any senator,"** : implore + O + to V = O에게 ~해 달라고 간청하다. you = the senate(동격). keep + O + 형용사 보어(unstained).
- **No better expression or embodiment of Stoicism is found in his line ... than: "Waste no more time talking about what a good man is like. Be one."** : No + 비교급 ~ than = 최상급 뜻(이보다 나은 것은 없다). waste time -ing. what ~ is like = ~은 어떤가(간접의문문). one = a good man.
- **But Marcus would not have accepted this explanation, for it sells short the training and the struggle he experienced as he worked to get better.** : would not have p.p. =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추측). 접속사 for = 왜냐하면. sell short = 깎아내리다 — 목적어가 길어 short 뒤로 갔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up	쿠데타	takeover	—
transgress	어기다	violate	obey
assassin	암살자	killer	—
plane (n.)	차원, 수준	level	—
grieved	몹시 슬퍼한	sorrowful	glad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evered	잘린	cut off	attached
collaborator	협력자, 공모자	accomplice	—
leniency	관대함	mercy	severity
endorse	지지하다	support	oppose
implore	간청하다	beg	—
vengeance	복수	revenge	forgiveness
dictum	신조, 격언	maxim	—
blameless	흠잡을 데 없는	faultless	guilty

내용 일치 아비디우스 카시우스 = 가장 믿던 장군, 쿠데타 시도 · 쿠데타 = 기회(병사들에게) · 암살자가 아비디우스를 죽임(마르쿠스에게 잘 보이려 한 것은 '거의 틀림없이') · 잘린 머리를 보지 못하고 묻게 함(디오 카시우스) · 협력자 · 원로원 의원들에게 관대 · 원로원 의원의 피를 거부 · 신조 = 옳은 일을 하라 · 좋은 사람이 되어라 · 흔한 오해 = 스토아는 고통 · 욕망을 넘어섰다 · 헤로디아누스 = 말이 아니라 성품과 절제된 생활로 증명. **지칭** 195쪽 ¶3 him(turned on him) = 마르쿠스 / ¶4 They = 마르쿠스와 병사들, one = 일반인, himself(impress himself) = 암살자, his enemy = 아비디우스, it(should be buried) = 잘린 머리, those who wanted vengeance = 마르쿠스를 위해 복수를 원한 사람들 / ¶5 one(Be one) = a good man / 196쪽 ¶2 this explanation = 그가 특별한 바탕을 타고났다는 설명.

> **한 줄 요약** 가장 믿던 장군의 반란마저 용서와 신의의 기회로 삼은 마르쿠스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대로 살았지만, 그것은 타고난 바탕이 아니라 훈련과 분투의 결과였다.

26-6 눈물 흘린 철학자, 너도 할 수 있다 196쪽 ¶3 ~ 197쪽 ¶3

원문 위치 원서 196쪽 ¶3 ~ 197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6쪽 ¶3	he was still a human being	요지 후보 · 한 문장 단락
★	196쪽 ¶4 둘째 문장	by the Historia Augusta that Marcus wept when … his favorite tutor had passed away	출전 — 내용 일치 후보
★	196쪽 ¶4 셋째 문장	he cried one day in court, … the countless souls who perished in the plague	내용 일치 후보
▲	196쪽 ¶5 첫 문장	We can imagine Marcus cried many other times.	추측 표현(단정 금지)
★	196쪽 ¶5 셋째~넷째 문장	his wife of thirty-five years … eight children, including all but one of his sons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	196쪽 ¶6 첫 문장	Marcus didn't weep because he was weak.	not이 because절을 부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6쪽 ¶6 다섯째 문장	"Neither philosophy nor empire ... takes away natural feeling."	어휘 후보 · neither A nor B
▲	196쪽 ¶7 첫 문장	must have lost his temper on occasion, or he never would have had cause to write	must have p.p. + or(그렇지 않았다면)
★	196쪽 ¶7 첫 문장	his Meditations—which was never intended for publication	내용 일치 1순위
◆	196쪽 ¶8 첫 문장	It was not all emotions he worked on domesticating, but the harmful ones	어휘 1순위 · 부분 부정 강조구문
▲	196쪽 ¶8 셋째 문장	Not 'some way to sleep with her'—but a way to stop wanting to	not A but B · 대부정사 to
★	196쪽 ¶9	The wife of George Marshall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196쪽 인용 셋째 문장	tempered by a sense of humility and selflessness	밑줄 의미: 힘을 알되 겸손으로 누그러뜨림
◆	197쪽 ¶1 둘째 문장	That he wasn't is the whole point.	요지 1순위 · that절 주어
▲	197쪽 ¶2 첫 문장	would not want us to be shamed by his example but be reminded	want + O + to be p.p. 병렬
★	197쪽 ¶3 셋째 문장	It means you can do the same.	요지 · 주장 1순위

내용

그리고 이 배움과 성품 아래에서도 그는 여전히 한 인간이었다. 우리는 마르쿠스도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 누구나 느끼는 고통과 상실과 좌절을 똑같이 느꼈다는 것을 안다.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는 그가 가장 아끼던 스승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울었다고 생생하게 전한다. 어느 날 법정에서 재판을 맡고 있을 때, 변호인이 아직도 로마를 휩쓸던 역병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을 언급하자 그가 울었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마르쿠스가 그 밖에도 여러 번 울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는 가장 믿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서른다섯 해를 함께한 아내를 잃었으며, 아들 하나만 남기고 모든 아들을 포함해 여덟 아이를 잃었다. 마르쿠스가 운 것은 약해서도, 스토아답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몹시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를 슬프게 했기 때문에 울었다. 아들이 흐느끼게 두며 안토니누스는 철학도 제국도 타고난 감정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니 마르쿠스도 이따금 화를 냈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출판할 생각이 전혀 없던 『명상록』에 분노를 다스릴 필요를 적을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욕정을 품었고, 두려워했고,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공상을 했다는 것을 안다. 그가 길들이려 애쓴 것은 모든 감정이 아니라 해로운 감정, 곧 그가 믿는 것을 배반하게 만들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썼다. '그 여자와 잘 방법'이 아니라 원하지 않게 될 방법을, '그를 없앨 방법'이 아니라 그러려는 시도를 멈출 방법을, '내 아이를 구할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을 방법을. 같은 반열의 또 다른 위인인 조지 마셜의 아내는 남편을 묘사하며 마르쿠스를 그토록 인상적으로 만든 것을 잡아냈다. 그녀는 남편에 관한 많은 글이 그의 나서지 않는 성격과 겸손을 말하지만 자신은 남편을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고, 남편은 자기 힘을 잘 알지만 그 앎이 강한 사람에게서 좀처럼 보지 못한 겸손과 사심 없음으로 누그러져 있다고 말한다. 마르쿠스가 날 때부터 완벽했다면 감탄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애써 거기에 이르렀고,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다. 마르쿠스 자신도 우리가 그의 본보기 앞에서 부끄러워하기보다 우리 안의 능력을 떠올리기를 바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도

자신에게도,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했다. 마르쿠스는 권력에 타락하지 않았고, 끔찍한 유행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배신에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았으며, 헤아릴 수 없는 개인적 비극에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법

- **We know that Marcus Aurelius was brought to tears like one, that he felt the same pain and losses and frustrations that everyone feels.** : know의 목적어 that절 둘이 병렬. be brought to tears = 눈물을 흘리게 되다. one = a human being(앞 단락).
- **This was a man who lost eight children, including all but one of his sons.** : including = 전치사(~을 포함해). all but one = 하나를 빼고 모두(but = ~을 제외하고).
- **Marcus didn't weep because he was weak.** : not이 because절을 부정한다: '약해서 운 것은 아니다'(울지 않았다는 뜻이 아님). 뒤의 He cried because he was human이 진짜 이유.
- **"Neither philosophy nor empire," Antoninus said sympathetically as he let his son sob, "takes away natural feeling."** : Neither A nor B가 주어 → 동사는 가까운 B(empire)에 맞춰 단수 takes. let + O + 원형(sob).
- **So Marcus Aurelius must have lost his temper on occasion, or he never would have had cause to write in his Meditations ... about the need to keep it under control.** : must have p.p. = ~했음이 틀림없다. or = 그렇지 않았다면 → would have p.p.(가정의 귀결). it = his temper.
- **It was not all emotions he worked on domesticating, but the harmful ones** : It was not A but B (that) ~ 강조구문(that 생략). not all = 부분 부정(모든 감정은 아니다). work on -ing = ~하는 데 힘쓰다.
- **That he wasn't is the whole point.** : That절이 주어(그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 단수 is. wasn't 뒤에 (naturally) perfect 생략.
- **Marcus himself would not want us to be shamed by his example but be reminded of our own capacities.** : want + O + to V. not A but B: to be shamed와 (to) be reminded가 병렬 — 둘째 to 생략. be reminded of = ~을 떠올리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erish	죽다	die	survive
ravage (v.)	휩쓸다, 황폐하게 하다	devastate	—
weep	울다	cry	laugh
sympathetically	공감하며, 다정하게	compassionately	coldly
sob	흐느끼다	cry	—
lust (v.)	욕정을 품다	desire	—
domesticate	길들이다	tame	—
stature	위상, 반열	eminence	—
retiring	나서지 않는	reserved	outgoing
temper (v.)	누그러뜨리다	moderate	intensify
selflessness	사심 없음	altruism	selfishness
capacity	능력	ability	inability
unfathomable	헤아릴 수 없는	immeasurable	comprehensible

내용 일치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 = 아끼던 스승의 죽음에 울었다 · 법정에서 역병 희생자 이야기에 울었다 · 그 밖에도 울었으리라는 것은 '상상' · 35년을 함께한 아내 · 여덟 아이(아들은 하나만 남음) · 안토니누스 = 철학도 제국도 타고난 감정을 없애지 못한다 · 『명상록』 = 출판할 생각이 없었음 · 길들인 것 = 해로운 감정만 · 조지 마셜의 아내 ·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 인간에게 가능하면 너도 할 수 있다. **밑줄 의미** he was still a human being = 철학자 황제도 울고 화내는 사람 / domesticating = 해로운 감정을 길들여 다스림(모든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님) / tempered by a sense of humility = 자기 힘을 알되 겸손으로 누그러뜨림 / That he wasn't is the whole point = 완벽하지 않았기에 그의 노력이 본보기가 된다.

> **한 줄 요약** 마르쿠스는 울고 화내고 두려워한 인간이었고 해로운 감정만 길들이려 애썼다. 그가 타고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가 해낸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

26-7 자기에게 쓴 책, 빚과 배움 197쪽 ¶4 ~ 198쪽 인용

원문 위치 원서 197쪽 ¶4 ~ 198쪽 인용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7쪽 ¶4 첫 문장	At the core of ... seems to be a pretty simple exercise	장소 부사구 문두 → 동사 · 주어 도치
★	197쪽 ¶4 첫 문장	he must have read about in Seneca's writings and then in Epictetus's: the morning or evening review	18 · 24장 연결 · must have p.p.(추측)
◆	197쪽 ¶4 셋째 문장	"Write them, read them aloud, talk to yourself and others about them."	요지 후보: 아침 · 저녁 성찰
▲	197쪽 ¶5 첫 문장	comes from the fact that for years he did that	동격 that · 대동사 did that
★	197쪽 ¶5 셋째 문장	quotes from Chrysippus, ... Panaetius and Zeno, ... Socrates, ... Aristophanes, ... Epictetus	인물 — 내용 일치 1순위
★	197쪽 ¶5 넷째 문장	which dates to 167 AD, translates from ta eis heauton, "to himself."	숫자 — 서답형 후보
★	197쪽 ¶6 첫 문장	the customs agent's apology at Tusculum ... "the one at Caiteta."	지명 — 내용 일치 후보
▲	197쪽 ¶6 둘째 문장	far too insignificant to have made the historical record	too ~ to have p.p.
◆	197쪽 ¶7 첫 문장	Meditations is not a book for the reader, it was a book for the author.	요지 1순위
▲	197쪽 ¶7 셋째 문장	a book that has not only survived through the centuries, but is still teaching	not only A but (also) B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7쪽 ¶7 넷째 문장	the philosopher Brand Blanshard would observe in 1984	인물·연도 — 내용 일치 후보
◆	197쪽 인용 둘째 문장	the ideals and aspirations that a rare spirit lived by	밑줄 의미: 행군 기록이 아니라 삶의 이상
★	198쪽 ¶1 둘째 문장	seventeen entries and some twenty-one hundred words (a full ten percent of the book)	숫자 — 서답형 1순위
★	198쪽 ¶1 넷째 문장	Rusticus for teaching him "not to write treatises on abstract questions	25장 연결 · 통합 사고 후보
▲	198쪽 ¶2 첫 문장	Why was he writing this if it would never be seen?	if절 + 과거에서 본 미래의 수동
◆	198쪽 인용 둘째 문장	Nothing is as encouraging as when virtues are visibly embodied	원급 비교로 최상급 뜻

내용

철학자이자 철학자 왕으로서 마르쿠스가 지닌 힘의 중심에는 꽤 단순한 수련이 있는 듯하다. 그가 세네카의 글에서, 그다음 에픽테토스의 글에서 읽었음이 틀림없는 아침 또는 저녁의 성찰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생각을 밤낮으로 곁에 두라고, 그것을 쓰고 소리 내어 읽고 자신과 남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마르쿠스의 철학적 사고에 관해 우리가 아는 많은 것은 그가 여러 해 동안 바로 그렇게 했다는 데서 나온다. 그는 끊임없이 스토아 사상의 다짐과 경구를 자신에게 적었다. 실제로 그의 유일한 저작으로 알려진 『명상록』에는 크리시포스의 인용, 파나이티오스와 제논의 글에서 따온 주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아리스토파네스의 시, 에픽테토스의 수련법, 그리고 스토아의 지혜에 대한 온갖 독창적 해석이 가득하다. 167년의 것으로 보는 『명상록』의 제목은 '자기 자신에게'라는 뜻의 '타 에이스 헤아우톤'을 옮긴 것이다. 이 제목은 책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 『명상록』을 읽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느끼듯 마르쿠스는 정말로 자신을 위해 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스쿨룸에서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세관 관리의 사과를 받아들인 방식'이라든지, 신의 개입이 있던 순간을 두고 '카이테타에서의 그 일'이라고만 쓴 메모들을 설명 없이 적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역사 기록에 남기에는 너무 사소했지만, 저자에게, 그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수십 년 뒤에도 기억하고 곱씹게 한 순간들이었다. 『명상록』은 독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저자를 위한 책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이 책을 인상적인 글, 역사상 위대한 문학적 업적 가운데 하나로 만든다. 오로지 자신에게, 자신을 위해 쓰면서도 마르쿠스는 수 세기를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는 책을 만들어 냈다. 철학자 브랜드 블랜샤드는 1984년에, 이제 로마 사령관들의 진군과 후퇴에 관심 두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수 세기가 붙들어 온 것은 실제 삶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한밤의 어스름 속에서 그날의 일이나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훨씬 오래가는 것, 곧 한 드문 영혼이 따라 산 이상과 열망을 적은 생각의 공책이라고 썼다. 『명상록』의 첫 쪽들은 그 영혼을 잘 보여 준다. 책은 '빚과 배움'이라는 부분으로 시작한다. 열일곱 항목, 약 2,100단어(책 전체의 꼬박 10퍼센트)에 걸쳐 마르쿠스는 삶의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시간을 들여 인정하고 정리한다. 남이 보지 않는 이 쪽들에서 그는 할아버지의 예의와 평온한 기질, 아버지의 과시 없는 남자다움, 어머니의 경건함과 너그러움, 바르게 일하는 태도를 심어 준 스승을 인정하고, 좋은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 준 신들에게 감사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추상적인 문제에 관한 논문을 쓰지 말고, 도덕을 늘어놓는 짧은 설교를 하지 말고, '소박한 삶'이나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에 관한 상상의 묘사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준 루스티쿠스에게도 감사한다. 아무도 보지 않을 글이라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끝내 모를 것이라면, 그는 왜 이 글을 썼을까. 마르쿠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격려가 필요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지닌 장점, 곧 이 사람의 활력, 저 사람의 겸손, 또 다른 사람의 너그러움을 떠올려라. 주변 사람들 안에서 미덕이 눈에 보이게 구현될 때, 그 미덕을 거의 쏟아붓듯 받을 때만큼 힘이 나는 것은 없다. 이것을 늘 마음에 두는 것이 좋다.

어법

- **At the core of Marcus Aurelius's power ... seems to be a pretty simple exercise that he must have read about in Seneca's writings and then in Epictetus's** : 장소 부사구가 문두 → 동사 seems + 주어 a pretty simple exercise 도치. about = read about의 전치사가 남은 것. Epictetus's = Epictetus's writings. must have p.p. = 추측.
- **So much of what we know about Marcus Aurelius's philosophical thinking comes from the fact that for years he did that.** : 주어 So much of what ~ → 단수 comes. the fact that = 동격 that. did that = 앞 단락의 '쓰고 읽고 말하기'를 받는 대동사구.
- **The title of Meditations, which dates to 167 AD, translates from ta eis heauton, "to himself."** : 주어 The title ... → translates(자동사: ~에서 옮겨지다). which의 선행사 = Meditations. date to = (연대가) ~로 거슬러 올라가다.
- **These were moments far too insignificant to have made the historical record but that influenced the author** : too ~ to have p.p. = 너무 ~해서 …하지 못했다(완료 부정사: 그때 기록에 오르지 못함). insignificant ~와 that절이 but으로 병렬되어 둘 다 moments를 꾸민다.
- **Somehow in writing exclusively to and for himself, Marcus Aurelius managed to produce a book that has not only survived through the centuries, but is still teaching and helping people today.** : in -ing = ~하면서. to and for himself = 두 전치사가 목적어 하나를 공유. not only A but B: has survived와 is teaching 병렬.
- **Across seventeen entries ... Marcus takes the time to acknowledge and codify the lessons he had learned from the important people in his life.** : 현재 시제 takes =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현재. take the time to V = 시간을 들여 ~하다. had learned = 대과거(쓰기 전에 배움).
- **he recognized his grandfather for his courtesy and serenity of temper; his father for manliness without ostentation; his mother for piety and generosity** : recognize A for B = A의 B를 인정하다. 세미콜론 뒤에서는 반복되는 동사 recognized가 생략된 병렬.
- **Nothing is as encouraging as when virtues are visibly embodied in the people around us** : Nothing is as ~ as ... = 최상급 뜻(…만큼 ~한 것은 없다). 둘째 as 뒤에 when절이 와서 '~할 때'와 비교한다. be embodied in = ~에 구현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phorism	경구	maxim	—
allusion	암시, 넌지시 언급함	reference	—
interpretation	해석	explanation	—
obliquely	넌지시, 간접적으로	indirectly	directly
intervention	개입	interference	—
insignificant	사소한	trivial	significant
mull over	곱씹다	ponder	—
feat	업적	achievement	failure
aspiration	열망	ambition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dify	정리하다, 체계화하다	systematize	—
ostentation	과시	showiness	modesty
piety	경건함	devoutness	impiety
treatise	논문	dissertation	—

내용 일치 아침 · 저녁 성찰 = 세네카 · 에픽테토스의 글에서 읽었'음이 틀림없는' 수련 · 『명상록』 = 유일하게 알려진 저작 · 크리시포스 · 파나이티오스 · 제논 · 소크라테스 · 아리스토파네스 · 에픽테토스 · 167년 · ta eis heauton('자기 자신에게') · 투스쿨룸(세관 관리의 사과) · 카이테타 · 설명 없음 · 독자가 아닌 저자를 위한 책 · 브랜드 블랜샤드(1984) · '빚과 배움' = 17항목 · 약 2,100단어 · 10퍼센트 · 할아버지(예의 · 평온) · 아버지(과시 없는 남자다움) · 어머니(경건 · 너그러움) · 스승(일하는 태도) · 루스티쿠스(논문 · 설교 · 상상의 묘사 금지). **밑줄 의미** a book for the author = 남에게 보이려는 책이 아니라 자신을 다잡으려는 책 / the ideals and aspirations that a rare spirit lived by = 사건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이 따라 산 이상 / showered with them = 주변 사람들의 미덕에 흠뻑 둘러싸임.

> **한 줄 요약** 세네카와 에픽테토스에게서 배운 성찰을 날마다 실천한 마르쿠스는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명상록』을 썼고, 그 첫머리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빚과 배움을 하나하나 적었다.

26-8 공동선과 덧없는 명성, 머리를 바꿔 끼우는 조각상 198쪽 ¶3 ~ 199쪽 ¶4

원문 위치 원서 198쪽 ¶3 ~ 199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8쪽 ¶3 첫 문장	What Marcus was using this writing for, then, is for the true intended purpose	what절 주어 + 전치사 for의 자리
★	198쪽 ¶3 둘째 문장	In Book Two, … surly and rude and selfish and stupid	내용 일치 후보
◆	198쪽 ¶3 다섯째 문장	"no one can implicate me in ugliness"	밑줄 의미: 남의 추함에 나를 끌어들일 수 없다
★	198쪽 ¶4 첫 문장	sympatheia … first advanced by Zeno but carried on by Chrysippus and Posidonius	인물 — 서답형 후보
★	198쪽 ¶4 둘째 문장	"common good" appears more than eighty times in Meditations	숫자 — 서답형 1순위
▲	198쪽 ¶4 둘째 문장	which for a Stoic makes sense but is surprising considering how	계속적 which(앞 절 전체) + considering
◆	198쪽 ¶4 셋째 문장	made by nature for the purpose of working with others	요지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8쪽 ¶5	But he did have to remind himself of that regularly	강조의 did
◆	198쪽 ¶6 첫 문장	to keep his ego in check	밑줄 의미 · 요지 후보
◆	198쪽 ¶6 셋째 문장	the clacking of tongues and the smacking of hands	밑줄 의미: 박수와 환호의 공허함
★	199쪽 ¶1 끝에서 셋째 문장	Alexander the Great and his mule driver, ... buried in the same cold ground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199쪽 ¶1 마지막 문장	It didn't hold a candle to character.	밑줄 의미: 성품에 비할 바가 못 됨
★	199쪽 ¶2 첫 문장	At Aquincum, ... near present-day Budapest ... the Second Legion	지명 — 내용 일치 · 어법 후보
▲	199쪽 ¶2 첫 문장	is believed to have written parts of Meditations	be believed to have p.p.(전해지는 사실)
◆	199쪽 ¶3 첫 문장	Knowing that he was only a placeholder helped Marcus prevent his position from going to his head	어법 · 밑줄 의미 1순위
★	199쪽 ¶4 첫 문장	Hadrian once got angry enough that he stabbed a secretary in the eye with a writing stylus	인물 — 어법 후보

내용

그렇다면 마르쿠스가 이 글쓰기를 한 것은 스토아 철학이 본래 노린 목적, 곧 나아지기 위해, 삶이 준비해 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2권은 그날 만날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을 것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것은 좋은 행동을 하지 않을 핑계였을까. 절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을까. 아니다. 마르쿠스는 누구도 나를 추함에 끌어들일 수 없고, 나를 해치거나 화나게 할 수도 없다고 썼다. 그는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했다. 준비되어 있어야 했고, 선해야 했다. 실제로 마르쿠스의 글에서 가장 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남을 섬기겠다는 다짐, 곧 제논이 처음 내세우고 그 뒤 수 세기 동안 크리시포스와 포세이도니오스가 이어 온 쉼파테이아와 공동선을 위해 행동할 의무라는 생각이다. '공동선'이라는 말은 『명상록』에 여든 번 넘게 나온다. 스토아로서는 당연하지만, 그의 선임자들 거의 모두가 나라의 목적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쿠스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마다 너는 남과 함께 일하도록 자연이 만든 존재임을 떠올리라고 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정말로 자주 스스로 일깨워야 했다. 우리 모두 그래야 하듯. 잊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마르쿠스는 이 사적인 일기를 자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썼다. 그는 명성이 덧없고 공허하다고 썼다. 박수와 환호는 혀를 놀리는 소리와 손바닥 부딪는 소리일 뿐이었다. 죽어 사라질 텐데 사후 명성이 무슨 소용이냐고, 게다가 미래의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만큼 성가시고 이것저것 틀릴 텐데 무슨 소용이냐고 그는 적는다. 한때 흔히 쓰이던 말이 이제는 낡게 들리고, 이름난 죽은 이들의 이름도 그렇다고 그는 썼다. 카밀루스, 카이소, 볼레수스, 덴타투스… 스키피오와 카토… 아우구스투스…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누스… 모든 것은 너무 빨리 바래 전설이 되고, 곧 망각이 덮는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의 노새 몰이꾼도 둘 다 죽어 같은 차가운 땅에 묻혔다고 마르쿠스는 쓴다. 명성이나 업적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은 성품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오늘날 부다페스트 근처의 로마 진지 아퀸쿰은 마르쿠스가 제2군단을 찾아가 『명상록』의 일부를 썼다고 여겨지는 곳인데,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토가를 입은 황제의 실물보다 큰 석회암 조각상을 발굴했다. 언뜻 보면 머리가 부러져 나간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머리를 바꿔 끼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조각상은 황제 숭배 사당의 일부였고, 사람들은 새 황제가 왕좌에 오를 때마다 머리를 갈아 끼우고 싶어 했다. 자신이 잠시 자리를 채우는 사람일 뿐임을 알았기에 마르쿠스는 지위 때문에 우쭐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한 기념물을 거의 세우지 않았고, 비판을 개의치 않았으며,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었다. 하드리아누스는 한번은 화가 난 나머지 비서의 눈을 필기용 철필로 찔렀다. 물론 아무 처벌도 없었다. 마르쿠스도 이 자유를 이용해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억제했고, 주변 사람들이 눈감아 주었을 텐데도 그들에게 화풀이하지 않았다. 그는 『명상록』에서 사라진 에우리피데스 희곡의 한 구절을 빌려, 세상이 알아주기라도 할 것처럼 왜 세상에 화를 내느냐고 쓴다.

어법

- **What Marcus was using this writing for, then, is for the true intended purpose of Stoicism** : What절 주어 — use A for B에서 B가 what으로 나가고 for가 끝에 남았다 → 단수 is. 보어에도 for가 다시 나와 '~를 위해서'임을 강조한다.
- **he opens by noting that the people he will meet in the course of the upcoming day will be surly and rude and selfish and stupid** : by -ing = ~하며(~함으로써). the people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책 내용을 소개하는 현재 시제(opens · will meet).
- **No, Marcus wrote, "no one can implicate me in ugliness," nor could they hurt him or make him angry.** :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nor could they). make + O + 형용사 보어(angry). implicate A in B = A를 B에 끌어들이다.
- **The phrase "common good" appears more than eighty times in Meditations, which for a Stoic makes sense but is surprising considering how nearly all of his predecessors viewed the purpose of the state.** : 계속적 which = 앞 절 전체(여든 번 넘게 나온다는 사실). considering + 간접의문문(how S V) = ~을 고려하면.
- **But he did have to remind himself of that regularly, as we all must, because it is so easy to forget.** : did have to = 강조의 do. remind oneself of = 스스로 일깨우다. as we all must (remind ourselves) = 생략. 가주어 it – 진주어 to forget.
- **where Marcus Aurelius visited the Second Legion and is believed to have written parts of Meditations** : 관계부사 where(선행사 = the Roman camp). be believed to have p.p. = ~했다고 여겨지다(전해지는 것이지 확정이 아님). 완료 부정사 = 믿는 시점보다 앞선 일.
- **Knowing that he was only a placeholder helped Marcus prevent his position from going to his head.** : 동명사 주어 → 단수 helped. help + O + 원형(prevent). prevent + O + from -ing. go to one's head = 우쭐하게 만들다.
- **Hadrian once got angry enough that he stabbed a secretary in the eye with a writing stylus.** : 형용사 + enough that ~ = ~할 만큼 …한(결과). stab + 사람 + in the + 신체 부위(정관사 th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urly	무뚝뚝한	sullen	friendly
implicate	끌어들이다	involve	—
predecessor	전임자	forerunner	successor
ego	자아	self	—
in check	억제된	under control	unchecked
archaic	낡은, 예스러운	outdated	modern
oblivion	망각	obscurity	fam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old a candle to	~에 비할 만하다	compare with	—
replaceable	바꿔 끼울 수 있는	interchangeable	permanent
shrine	사당	sanctuary	—
placeholder	잠시 자리를 채우는 사람	stand-in	—
abuse (v.)	남용하다	misuse	—
lash out	화풀이하다	attack	—

내용 일치 글쓰기의 목적 = 나아지고 대비하기 · 2권 첫머리 = 무뚝뚝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 쉼파테이아 = 제논이 처음, 크리시포스 · 포세이도니오스가 이음 · '공동선' 80번 넘게 · 선임자들과 대비 ·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 명성 = 덧없고 공허 · 알렉산드로스와 노새 몰이꾼 · 아퀸쿰 = 부다페스트 근처 · 제2군단 · 『명상록』 일부를 썼다고 '여겨짐' · 석회암 조각상(머리 교체) · 기념물 적음 · 비판 개의치 않음 · 하드리아누스 = 비서의 눈을 철필로 · 에우리피데스(사라진 희곡). **지칭** 198쪽 ¶3 they(nor could they) = 그날 만날 무례한 사람들 / ¶5 that = 남과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 / 199쪽 ¶1 It(didn't hold a candle) = 명성이나 업적 / ¶2 they = 황제 숭배 사당의 사람들, a new one = 새 황제 / ¶4 this freedom = 화를 내도 처벌받지 않는 황제의 자유, they(would have let him) = 마르쿠스 주변 사람들.

> **한 줄 요약** 마르쿠스는 일기로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스스로 일깨우고 명성의 덧없음을 되새겼으며, 자신이 잠시 자리를 채우는 사람일 뿐임을 알아 권력과 분노를 억제했다.

26-9 완벽하지 않은 통치자, 쓴 오이는 버려라 199쪽 ¶5 ~ 200쪽 ¶2

원문 위치 원서 199쪽 ¶5 ~ 200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9쪽 ¶5 첫 문장	It cannot be said, for all his dignity and poise, that	가주어 it + that절 / for all = ~에도 불구하고
▲	199쪽 ¶5 둘째 문장	No leader is, nor would Marcus have expected he could be.	생략(perfect) + nor 도치
★	199쪽 ¶5 셋째 문장	persecutions of the Christians under his reign—a stain on both him and Rusticus	25장 연결 · 내용 일치 1순위
★	199쪽 ¶5 넷째 문장	Tertullian, an early Christian writer … a protector of Christians	인물 — 서답형 후보
●	199쪽 ¶5 다섯째 문장	incapable of questioning the institution entirely	반전 후보 → 노예제 폐지는 못 함
◆	199쪽 ¶5 여섯째 문장	"citizen of the world," … regarded large swaths … as "barbarians"	요지 후보: 말과 행동의 어긋남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9쪽 ¶5 일곱째 문장	only the second emperor since Augustus to have a male heir ... his son Commodus	인물·숫자 — 서답형 1순위
◆	199쪽 ¶6 첫 문장	It's unfair to compare Marcus only to his own writings	주장 1순위
★	199쪽 ¶6 둘째 문장	"he ruled better than any others who had ever been in any position of power."	비교급 + than any other · 디오 카시우스
▲	199쪽 ¶7 둘째 문장 ~ 200쪽 첫 줄	To be a sovereign or an executive is to come face-to-face with	to부정사 주어 = to부정사 보어
◆	200쪽 첫 줄 셋째 문장	Marcus turned out to have the ivory shoulders	193쪽 ¶6 상아 어깨와 연결
◆	200쪽 첫 줄 넷째~여섯째 문장	"Don't go expecting Plato's Republic" ... take reality on reality's terms	빈칸 1순위
★	200쪽 첫 줄 일곱째 문장	like Abraham Lincoln, impressively pragmatic	빈칸 · 어휘 후보
◆	200쪽 첫 줄 여덟째~열한째 문장	"The cucumber is bitter? ... Then throw it out."	밑줄 의미: 장애물은 받아들이고 돌아가라
★	200쪽 ¶1 넷째 문장	it is impossible for one to create such men as one desires to have	요약 후보(디오 카시우스)
★	200쪽 ¶2 첫 문장	Ernest Renan, a nineteenth-century biographer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내용

위엄과 침착함을 다 갖추었어도 마르쿠스가 완벽한 통치자였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지도자도 그렇지 않고, 마르쿠스도 자신이 그럴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치세에 있었던 기독교인 박해는 그의 잘못으로 꼽아야 한다. 그와 루스티쿠스 모두에게 남은 얼룩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의 통치 말년을 살았던 초기 기독교 저술가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를 기독교인의 보호자로 여겼다. 노예의 삶을 조금 낫게 하기는 했지만, 그는 모든 스토아와 마찬가지로 노예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는 못했다. '세계 시민'을 말하고 지구에 사는 모든 이가 하나라고 믿었으면서도, 그는 세계 인구의 넓은 부분을 '야만인'으로 여겨 그들과 싸우고 많은 이를 죽였다. 그리고 물론 후계자로는, 아우구스투스 이후 아들 후계자를 둔 두 번째 황제로서 결국 아들 코모두스에게 왕좌를 물려주기로 했다(또는 그렇게 하도록 내몰렸다). 코모두스는 정신이 이상하고 결함 많은 사람으로 드러났다. 마르쿠스를 그 자신의 글이나 그의 철학이 세운 불가능하리만큼 높은 기준에만 견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최고 권력을 쥐었던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놓고도 보아야 한다. 디오 카시우스가 그렇게 했다. 그는 마르쿠스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다른 누구보다도 잘 다스렸다고 말했다. 마르쿠스처럼 섬세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대개 형편없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통례다. 군주나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지저분함, 인간의 결함과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철학자 왕이 그토록 드문 까닭은 기회가 없어서만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그 일이 요구하는 것에 흔히 못 미치기 때문이다. 마르쿠스는 그 일에 필요한 날카로운 정신뿐 아니라 상아 어깨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플라톤의 『국가』를 기대하지 말라고 스스로 일깨웠다. 그는 현실을 현실의 조건대로 받아들여야 했고, 있는 것으로 꾸려 가야 했다. 이상주의자이자 생각을 사랑한 사람이면서도 마르쿠스는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놀랄 만큼 실용적이었다. 오이가 쓰냐고? 그럼 버려라. 길에 가시덤불이

있냐고? 그럼 돌아가라. 알아야 할 것은 그것뿐이다. 그의 지도 방식과 진보에 대한 생각을 이보다 잘 드러낸 말은 없다. 너는 행동 하나하나로 삶을 쌓아 가야 하고, 각 행동이 할 수 있는 만큼 목표를 이루면 만족해야 한다. 누구도 너를 그것에서 막을 수 없다. 바깥의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의와 절제와 지혜로 행동하는 데는 장애물이 없다. 내 행동의 다른 부분이 가로막히면? 그 장애물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으로 눈을 돌려라. 그러면 다른 행동이 곧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네가 쌓아 가는 삶에 더 잘 맞는 행동이. 그가 함께 일한 정치인들을 대한 방식도 이와 같았던 듯하다. 재능 있고 뛰어난 많은 지도자가 그러듯 남을 자기 기준에 묶거나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대신, 그는 그들의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링컨처럼 그는 반대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한 공통의 기반과 공통의 대의를 활용했다. 디오 카시우스에 따르면 마르쿠스는 누가 무엇이든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하고 그가 뛰어난 일에 썼지만 그 밖의 행동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을 바라는 대로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 이미 있는 사람들을 저마다 나라에 할 수 있는 일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19세기의 마르쿠스 전기 작가 에르네스트 르낭은, 엄격한 철학은 딱딱함과 가혹함을 낳았을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서 마르쿠스 본성의 드문 선함이 찬란하게 빛났다고, 그의 엄격함은 자기 자신에게만 향했다고 말한다.

어법

- **It cannot be said, for all his dignity and poise, that Marcus was a perfect ruler.**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for all + 명사 = ~에도 불구하고(삽입).
- **No leader is, nor would Marcus have expected he could be.** : is와 could be 뒤에 a perfect ruler가 생략. nor + would + 주어 도치. would have p.p. = 추측.
- **he was considered by Tertullian ... to be a protector of Christians** : consider + O + to be 보어의 수동(be considered to be). 행위자 by Tertullian이 동사와 to be 사이에 끼었다.
- **he ultimately chose—or was forced to choose, as only the second emperor since Augustus to have a male heir—to pass the throne to his son Commodus** : chose와 목적어 to pass ~ 사이에 대시 삽입. as = ~로서(자격). the second ~ to V = ~한 두 번째(서수 + to부정사).
- **"he ruled better than any others who had ever been in any position of power."** : 비교급 + than any other(s) = 최상급 뜻. had been = 과거완료(그때까지).
- **To be a sovereign or an executive is to come face-to-face with the messiness of the world** : to부정사 주어 = to부정사 보어(A하는 것은 B하는 것이다).
- **The reason there have been so few philosopher kings is not just a lack of opportunity—it's that philosophers often fall short of what the job requires.** : The reason 뒤 관계부사 why 생략 → 주어 The reason(단수) + is. not just A — it's B(that절) 대비. fall short of = ~에 못 미치다.
- **for he declared that it is impossible for one to create such men as one desires to have** : 가주어 it – 의미상 주어 for one – 진주어 to create. such A as ~ = ~하는 그런 A(as는 유사관계대명사). one = 일반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oise	침착함	composure	agitation
persecution	박해	oppression	tolerance
stain	얼룩, 오점	blemish	—
swath	넓은 부분	expanse	—
deranged	정신이 이상한	insane	sane
sovereign	군주	monarch	subject
foible	약점	weakness	strength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all short of	~에 못 미치다	fail to meet	meet
pragmatic	실용적인	practical	idealistic
bramble	가시덤불	thorn bush	—
thwart	가로막다	frustrate	assist
tolerant	너그러운	lenient	intolerant
austere	엄격한	severe	lenient

내용 일치 완벽한 통치자 아님 · 기독교인 박해 = 그와 루스티쿠스의 얼룩 · 테르툴리아누스 = 기독교인의 보호자로 여김 · 노예 = 조금 개선, 제도 자체는 문제 삼지 못함 · '세계 시민'인데 '야만인'과 전쟁 · 아우구스투스 이후 아들 후계자를 둔 두 번째 황제 · 코모두스 · 디오 카시우스 = 다른 누구보다 잘 다스림 · 섬세한 사람은 대개 형편없는 지도자 · 플라톤의 『국가』 · 링컨처럼 실용적 · 쓴 오이 · 가시덤불 · 정치인들의 강점에 집중 · 르낭 = 19세기 전기 작가, 엄격함은 자신에게만. **밑줄 의미** a stain on both him and Rusticus = 두 사람 모두의 오점 / Don't go expecting Plato's Republic = 이상 국가를 기대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 The cucumber is bitter? Then throw it out = 바꿀 수 없는 장애물에 매달리지 말고 버리거나 돌아가라 / His severity was confined only to himself =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만 엄격했다.

> **한 줄 요약** 마르쿠스에게는 박해와 노예제와 코모두스라는 오점이 있었지만, 다른 통치자들과 견주면 누구보다 잘 다스렸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만 엄격했다.

26-10 무소니우스와 에픽테토스의 꿈, 내 영혼이라는 쉼터 200쪽 ¶3 ~ 202쪽 ¶2

원문 위치 원서 200쪽 ¶3 ~ 202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0쪽 ¶3 첫 문장	Musonius Rufus, some forty-odd years before Marcus was born, … a Syrian king	23장 연결 · 통합 사고 후보
▲	200쪽 인용 첫 문장	nor for any other reason than because you are a king	nor 병렬 · other than
◆	200쪽 인용 둘째 문장	the first duty of a king is to be able to protect and benefit his people	요지 후보
★	201쪽 ¶1 첫 문장	persecuted and abused by five consecutive Roman emperors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201쪽 ¶1 셋째 문장	impossible for anyone but a good man to be a good king	23장 연결 · 통합 사고 1순위
▲	201쪽 ¶2 첫 문장	Could Epictetus have imagined that his teachings would make their way to	could have p.p. 의문(추측)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1쪽 ¶2 둘째~셋째 문장	protected the rights of freed slaves ... forbade the capital punishment of slaves	내용 일치 1순위
▲	201쪽 ¶2 넷째 문장	Was it the story of Epictetus's broken leg that inspired him?	강조구문 의문문 · 24장 연결
◆	201쪽 ¶3 ~ ¶4	Do what is right. / Come what may.	요지 · 빈칸 후보
★	201쪽 ¶5 첫~둘째 문장	apatheia (the absence of passions). The word galene ... appears eight times	숫자 — 서답형 후보
▲	201쪽 ¶5 다섯째 문장	the few minutes he stole ..., he savored as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목적어 문두 도치
◆	201쪽 ¶6 둘째 문장	"Life is warfare and a journey far from home,"	밑줄 의미 · 요지 후보
★	201쪽 ¶6 넷째 문장	Some twelve years ... along the Danube River	숫자·지명 — 서답형 1순위
★	201쪽 ¶6 ~ 202쪽 첫 줄	"Eight!" ... four fingers on each hand ... eight hundred sesterces apiece	숫자 — 어법 · 내용 일치 후보
◆	202쪽 ¶1 둘째 문장	"Be tolerant with others and strict with yourself."	요지 1순위 · 200쪽 ¶2와 연결
◆	202쪽 ¶2 다섯째 문장	nowhere can you find a more peaceful and less busy retreat than in your own soul	부정어 도치 · 무관한 문장 후보

내용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마르쿠스가 태어나기 마흔 몇 해 전 한 시리아 왕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그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구라도 당신보다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왕이라는 것 말고 다른 이유로 공부한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왕의 첫째 의무는 백성을 지키고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키고 이롭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불리한지를 알아야 한다. 악과 손잡는 사람은 해를 입고 선을 붙드는 사람은 보호를 누리며, 도움과 이익을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고 불리하고 해로운 일에 몸담는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섯 황제에게 잇따라 박해와 학대를 받은 무소니우스가, 자신의 비전이 언젠가 이런 사람에게 뿌리내리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 스토아가 말하고 꿈꿔 온 모든 것이 그토록 아름답게, 그러나 그토록 짧게 이루어지리라고. 그는 좋은 사람만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무소니우스를 읽은 마르쿠스는 이 명령에 부응하려 최선을 다했다. 에픽테토스는 자기 가르침이, 마르쿠스가 그랬듯 로마 노예들의 처지를 개선하려 실제로 발걸음을 내디딘 첫 황제에게 닿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 마르쿠스는 의붓아버지 안토니누스(여기서는 stepfather)와 함께 해방 노예의 권리를 보호했고,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기까지 했다. 전하는 바로는 노예의 사형을 금지했고, 노예를 지나치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도 범죄로 만들었다. 그를 움직인 것은 에픽테토스의 부러진 다리 이야기였을까. 덜 가진 사람들을 돌보게 한 것은 스토아의 정의라는 덕이었을까. 마르쿠스에게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앨 안목이 없었다는 것은 실망스럽지만, 누군가 자기 시대의 잘못된 생각 너머를 보거나 그것을 꿰뚫어 보고, 조금씩이라도 동료 인간들을 위해 세상을 낫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인상적이다. 이것들은 쉬운 결정도, 논란 없는 결정도 아니었겠지만 그는 스토아가 해야 하듯 결정을 내렸다. 항의는 잊어라. 비판과 비판자들의 속셈도 잊어라. 새롭거나 앞선 무언가를 실행하는 데 드는 고된 수고도 잊어라. 옳은 일을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 돌아보면 마르쿠스가 일기장을 자신을 가라앉히고, 바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아파테이아(정념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데 썼다는 것이 분명하다. 고요함이나 잔잔함을 뜻하는 '갈레네'라는 낱말은 그의 글에 여덟 번 나온다. 강과 바다와 별에 관한 비유,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관찰도 있다. 철필과 밀랍판, 또는 파피루스와 잉크를 들고 앉는 과정은 그에게 깊은 치유가 되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철학하며 보내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원정 중 막사에서, 또는 아래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콜로세움의 자리에서 훔쳐 낸 몇 분을 성찰의 기회로 음미했다. 이 쪽들에서 그는 운명이 그토록 자주 그를 겨누는 듯한 타격에 맞서 마음을 단단히 하기도 했다. 그는 삶은 전쟁이자 집에서 먼 여행이라고 쓴다. 말 그대로 사실이었다. 그는 삶의 약 12년을 제국 북쪽 국경 도나우강을 따라 길고 잔혹한 전쟁을 치르며 보내게 된다. 디오 카시우스는 마르쿠스가 오랜 부재 끝에 로마로 돌아온 장면을 묘사한다. 그가 사람들에게 연설하며 자신이 얼마나 오래 떠나 있어야 했는지 말하자, 사람들은 두 손에 손가락을 넷씩 펴 들고 애정을 담아 '여덟!' '여덟!' 하고 외쳤다. 그는 8년 동안 떠나 있었다. 그 무게가 그 순간 그에게 와닿았고, 군중의 사랑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마르쿠스는 그런 것이 하찮다고 늘 스스로 말했지만 말이다. 그는 감사와 선의의 표시로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 800세스테르티우스씩 나누어 주었는데, 황제가 백성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돌아오자 그는 황제 개인 금고에 진 수많은 빚을 탕감했고, 다시는 되살릴 수 없도록 광장에서 그 문서를 실제로 불태웠다. 마르쿠스는 검소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에게 너그럽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제로 황제로서 그의 정책은 그가 어느 날 일기에 적은 원칙, 곧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그토록 스스로를 다잡는 것은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러나 『명상록』에는 불평도, 혼자만의 탄식도, 남 탓도 없다. 짐을 벗어나 바닷가나 산이나 아끼는 책이 있는 서재에서의 시간을 꿈꿀 때, 그는 회복하려고 휴가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쉬려고 여행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 일깨웠다. 그는 네 영혼 안보다 더 평화롭고 덜 분주한 쉼터는 어디에도 없으니, 자주 그 쉼터로 물러나 새로워지라고 썼다.

어법

- **Musonius Rufus, some forty-odd years before Marcus was born, had been approached by a Syrian king.** : had been p.p. = 과거완료 수동(마르쿠스 출생보다 앞선 일). forty-odd = 마흔 몇. some = 약.
- **"Do not imagine that it is more appropriate for anyone to study philosophy than for you, nor for any other reason than because you are a king."** : 가주어 it – 의미상 주어 for anyone – 진주어 to study. 비교 대상 for anyone ↔ for you. nor 뒤에는 (that you should study it)이 생략 — for any other reason than ~ = ~ 말고 다른 이유로.
- **Could Musonius have imagined—persecuted and abused by five consecutive Roman emperors—that his vision would one day take hold in such a man?** : could have p.p. 의문 = ~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대시 사이 과거분사구 = 주어 Musonius의 처지(수동). that절 = imagined의 목적어.
- **He had said it was impossible for anyone but a good man to be a good king** : 가주어 it – 의미상 주어 for anyone but a good man – 진주어 to be. but = ~을 제외하고(좋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 **made it possible for slaves to inherit property from their masters** : make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for 의미상 주어 + 진목적어 to V. 뒤의 made excessively cruel treatment of them a crime = make + O + 명사 보어.
- **Was it the story of Epictetus's broken leg that inspired him?** : It was ~ that 강조구문의 의문문. 원서는 답하지 않는다(추측의 물음).
- **the few minutes he stole in his tent on campaign, or even in his seat in the Colosseum as the gladiators fought below, he savored as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 savor A as B의 목적어 A(the few minutes ~)가 문두로 나간 목적어 도치. minutes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For nowhere can you find a more peaceful and less busy retreat than in your own soul,"** : 부정어 nowhere 문두 → 조동사 can + 주어 you 도치. nowhere ~ 비교급 than = 최상급 뜻.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enefactor	이롭게 하는 사람, 은인	patron	—
ally oneself with	~와 손잡다	side with	oppose
consecutive	연속된	successive	—
plight	곤경	predicament	—
incrementally	조금씩	gradually	—
uncontroversial	논란 없는	undisputed	controversial
enact	실행하다, 제정하다	implement	repeal
therapeutic	치유가 되는	healing	harmful
savor	음미하다	relish	—
steel oneself	마음을 단단히 하다	brace oneself	—
beneficence	선행, 선의	kindness	malevolence
adhere to	따르다	follow	violate
lamentation	탄식	wailing	rejoicing

내용 일치 무소니우스 = 마르쿠스 출생 마흔 몇 해 전 · 시리아 왕 · 왕의 첫째 의무 = 백성을 지키고 이롭게 함 · 다섯 황제에게 잇따라 박해 · 좋은 사람만 좋은 왕 · 마르쿠스는 무소니우스를 읽음 · 해방 노예의 권리 · 노예의 상속 · 노예 사형 금지와 학대 처벌('전하는 바로는') · 에픽테토스의 부러진 다리(물음일 뿐) · 노예제 자체는 없애지 못함 · 아파테이아 · 갈레네 8번 · 철필 · 밀랍판 · 막사 · 콜로세움 · 도나우강 약 12년 · '여덟!'(손가락 넷씩) · 8년 · 1인당 800세스테르티우스 = 가장 큰 선물 · 빚 문서를 광장에서 태움. **밑줄 의미** take hold in such a man = 스토아의 비전이 마르쿠스라는 황제에게서 뿌리내림 / so fleetingly = 아름답게 이루어졌지만 오래가지 않음 / Come what may = 무슨 일이 닥치든 옳은 일을 하라 / Life is warfare and a journey far from home = 비유이자 말 그대로의 사실(12년의 원정) / a retreat … in your own soul = 쉼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 **한 줄 요약** 무소니우스와 에픽테토스가 꿈꾼 것은 마르쿠스에게서 뿌리내렸다. 그는 노예의 처지를 개선하고 백성에게 너그러웠으며, 원정의 막사에서 쓴 일기로 마음의 고요를 찾았다.

26-11 잇따른 상실, 품위 있게 퇴장하라 202쪽 ¶3 ~ 204쪽 ¶3

원문 위치 원서 202쪽 ¶3 ~ 204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2쪽 ¶3	In 149 … twin boys. In 151 … Domitia Faustina. In 152 … Cornificia … Domitia Lucilla	연도·인물 — 복원표 1순위
★	202쪽 ¶3	In 165 … (twin brother of Commodus) … In 169 … Verus … Lucius Verus	연도·인물 — 내용 일치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2쪽 ¶3 열한째 문장	his son Verus, ..., whom he had hoped would rule alongside Commodus	삽입절이 낀 관계대명사(원칙은 who)
★	202쪽 ¶4 첫~둘째 문장	Of Marcus's boys, five died before he did. Three of his daughters as well.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	202쪽 ¶5 첫 문장	how easily ... it might cause them to toss away everything	감탄문 + cause + O + to V
◆	202쪽 인용 셋째 문장	It's fortunate that this has happened and I've remained unharmed by it	요약 1순위 · 밑줄 의미
◆	203쪽 ¶1 둘째 문장	without arrogance and without apology	요지 후보(안토니누스)
◆	203쪽 ¶1 다섯째 문장	"Accept it without arrogance, ... and let it go with indifference."	빈칸 후보
★	203쪽 ¶2	"preferred indifferents" that Zeno and Cleanthes and Chrysippus and Aristo	3 · 4장 연결 ·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203쪽 ¶3 첫 문장	There is no theme that appears more in Marcus's writing than death.	부정 + 비교급 = 최상급
★	203쪽 ¶3 셋째 문장	Donald Robertson ... How to Think Like a Roman Emperor ... burning of incense	인물·책 — 내용 일치 후보
◆	203쪽 ¶4 다섯째 문장	"You could leave life right now, let that determine what you do and say and think."	요지 후보
◆	203쪽 인용 넷째 문장	So make your exit with grace—the same grace shown to you.	빈칸 · 밑줄 의미 1순위 · 204쪽 인용과 수미상관
★	203쪽 ¶6 첫 문장	on the Germanic battlefields, near modern-day Vienna	지명 — 순서 · 서답형 후보
▲	204쪽 첫 줄 셋째 문장	with the dignity of a man who had practiced for this moment many times	18장 세네카와 연결 · 과거완료
★	204쪽 ¶2 첫 문장	on March 17, 180, at age fifty-eight, ... "Go to the rising sun; I am already setting."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내용

앞서 말했듯 마르쿠스의 어린 시절은 상실로 규정되었고, 말년도 그랬다. 타격이 잇따랐다. 149년 갓 태어난 쌍둥이 아들을 잃었다. 151년 맏딸 도미티아 파우스티나를 잃었다. 152년 또 다른 아들 티베리우스 아일리우스 안토니누스가 갓난아기 때 죽었다. 같은 해 누이 코르니피키아가 죽었고, 얼마 뒤 어머니 도미티아 루킬라가 죽었다. 158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아들이 죽었다. 161년 양아버지 안토니누스 피우스를 잃었다. 165년 또 다른 아들 티투스 아우렐리우스 풀부스 안토니누스(코모두스의 쌍둥이 형제)가 죽었다. 169년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 베루스를 간단해야 할 수술 도중에 잃었다. 자신이 형제와 함께 다스렸듯 코모두스와 함께 다스리기를 바랐던 아들이었다. 같은 해 그는 바로 그 형제이자 공동 황제인 루키우스 베루스를 잃었다. 머지않아 서른다섯 해를 함께한 아내도 잃게 된다. 마르쿠스의 아들 가운데 다섯이 그보다 먼저 죽었다. 딸도 셋이 그랬다. 어떤 부모도 자식보다 오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덟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잃었다. '불공평하다'는 말로는 어림도 없는 끔찍한 일이다. 이것이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그가 믿어 온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토록 잔인할 수 있는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기가 얼마나 쉽고 이해할 만한지. 그런데도 마르쿠스는 이 모든 운명의 굴곡 뒤에, 지도력의 본질과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을 담은 글을 쓴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불운하다.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다치지 않고 남아 있다니, 현재에 부서지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아 있다니 다행이다. 그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일에 다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르쿠스는 양아버지 안토니누스를 늘 본보기로 삼았다. 특히 그는 운명이 넘치도록 준 물질적 안락을 안토니누스가 다룬 방식, 곧 오만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은 태도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있으면 누렸고, 없으면 아쉬워하지 않았다. 마르쿠스는 훗날 『명상록』에서 삶의 오르내림, 축복과 저주를 두고 오만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무심하게 떠나보내라고 쓴다. 오래전 제논과 클레안테스와 크리시포스와 아리스토가 논쟁한 '선호되는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을 이보다 잘 요약한 말이 있을까. 마르쿠스의 글에 죽음보다 자주 나오는 주제는 없다. 아마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죽을 운명을 그토록 날카롭게 의식했겠지만, 다른 원천도 있었다. 도널드 로버트슨은 『로마 황제처럼 생각하는 법』에서 로마인들이 향을 피우면 가족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전한다. 다른 많은 부유한 시민과 달리 역병 동안 로마를 떠나지 않았기에, 마르쿠스는 시신의 썩은 냄새와 향의 달콤한 냄새가 뒤섞인 기이한 냄새의 도시에서 아침을 맞았다. 로버트슨은 10년 넘게 향 연기 냄새가 마르쿠스에게 자신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웠다고 쓴다. 그의 글은 이 깨달음을 거듭 비춘다. 너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겨라. 너는 네 삶을 살았다. 이제 남은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라. 다른 쪽에서 그는, 너는 지금 당장 삶을 떠날 수 있으니 그것이 네가 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정하게 하라고 말한다. 그가 죽어 가며 썼을 가능성이 충분한 『명상록』의 마지막 두 항목도 이 주제로 돌아간다. 이만큼 살든 저만큼 살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는 묻는다. 막은 모든 배우에게 내린다. 하지만 나는 세 막밖에 못 했다며, 그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의 안쪽을 대변한다. 그렇다. 이것은 세 막짜리 연극이 될 것이다. 그 길이는 네 탄생을 이끈 힘, 이제 네 소멸을 이끄는 그 힘이 정했다. 어느 쪽도 네가 정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 품위 있게 퇴장하라. 네게 베풀어진 것과 같은 너그러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스토아와 모든 인간에게 그랬듯 이 철학자 왕의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죽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을지, 거기에 어떤 용기와 침착함과 연민을 가져갈지는 분명 좌우할 수 있다. 전하는 바로는 마르쿠스는 생의 끝 무렵 집에서 먼 게르마니아 전장, 오늘날 빈 근처에서 몹시 앓았다. 무슨 병이든 아들에게 옮길까 걱정되고 후계를 둘러싼 어떤 분란도 피하려고, 마르쿠스는 눈물로 아들과 작별하고 다스릴 준비를 하라며 떠나보냈다.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도 그는 여전히 가르치고, 여전히 철학자가 되려 했다. 특히 슬픔에 잠긴 친구들에게 그랬다. 그는 왜 나를 위해 우느냐고, 역병과 우리 모두의 공통된 운명인 죽음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여러 번 연습해 온 사람의 품위로, 이제 떠나도록 허락해 준다면 작별을 고하고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쯤 더 살았다. 아마 이 마지막 몇 순간에, 몸은 약하지만 의지는 여전히 강한 채로, 그는 『명상록』에 남은 마지막 말, 자기 철학에 충실하라는 다짐을 적었을 것이다. 그러니 품위 있게 퇴장하라. 네게 베풀어진 것과 같은 너그러움으로. 마침내 180년 3월 17일, 쉰여덟 살에, 그는 경비병을 돌아보며 떠오르는 해에게 가라, 나는 이미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잠들려고 머리를 덮었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로마는,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는 그런 위대함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

어법

- **As we said, Marcus's early years were defined by loss, and so were his later ones.** : so + be동사 + 주어 = …도 그랬다(도치). ones = years. As we said = 192쪽 ¶5를 받는다.
- **In 169, he lost his son Verus, a sweet boy, during what was supposed to be routine surgery, whom he had hoped would rule alongside Commodus, as he had ruled with his own brother.** : 관계대명사는

would rule의 주어이므로 원칙은 who(삽입절 he had hoped를 빼면 who would rule) — 원서는 whom으로 썼다. as = ~했듯이. what = 관계대명사.

- **How easily this could shatter a person, how easily and understandably it might cause them to toss away everything they ever believed** : How + 부사 + S + V 감탄 둘이 병렬. cause + O + to V. them = a person을 받는 단수 they.
- **It's fortunate that this has happened and I've remained unharmed by it—not shattered by the present or frightened of the future.**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this has happened와 I've remained ~가 함께). remain + 형용사 보어. not A or B = A도 B도 아닌.
- **There is no theme that appears more in Marcus's writing than death.** : 부정 + 비교급 + than = 최상급 뜻(죽음이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
- **This will be a drama in three acts, the length fixed by the power that directed your creation, and now directs your dissolution.** : the length fixed by ~ = 의미상 주어가 있는 독립분사구문(길이는 ~이 정한 것). 관계대명사 that의 동사 directed와 directs가 병렬(과거 → 현재).
- **Worried about spreading whatever he had to his son, and also to avoid any complications about succession, Marcus bade him a tearful goodbye** : 분사구문(Worried ~ = 이유)과 목적의 to부정사(to avoid ~)가 and로 이어졌다. whatever = 무엇이든(복합관계대명사). bid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bade = 과거형).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low (n.)	타격	setback	—
infancy	유아기	babyhood	adulthood
outlive	~보다 오래 살다	survive	—
grotesque	끔찍한, 기괴한	monstrous	—
shatter	산산이 부수다	smash	—
resilience	회복력	toughness	fragility
arrogance	오만	haughtiness	humility
indifference	무심함	detachment	concern
dissolution	해체, 소멸	disintegration	creation
bereft	(잃고) 슬픔에 잠긴	grief-stricken	—

내용 일치 149 쌍둥이 아들 · 151 맏딸 도미티아 파우스티나 · 152 아들 티베리우스 아일리우스 안토니누스 · 같은 해 누이 코르니피키아 · 얼마 뒤 어머니 도미티아 루킬라 · 158 이름 모르는 아들 · 161 안토니누스 피우스 · 165 코모두스의 쌍둥이 형제 · 169 아들 베루스 · 루키우스 베루스 · 그 뒤 아내 · 아들 다섯 + 딸 셋 = 여덟 · '선호되는 무관한 것'(제논 · 클레안테스 · 크리시포스 · 아리스토) · 가장 많은 주제 = 죽음 · 로버트슨 · 향 · 마지막 두 항목은 죽어 가며 썼을 '가능성' · 빈 근처 · 180년 3월 17일 · 58세. **밑줄 의미** It's fortunate that ... I've remained unharmed = 불운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이 행운 / without arrogance and without apology = 뽐내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음 / make your exit with grace = 죽음도 담담하고 품위 있게 맞아라 / I am already setting = 나는 지는 해이니 다음 세대에게 가라.

> **한 줄 요약** 여덟 아이를 잃고도 무너지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 적은 마르쿠스는 죽음을 늘 연습하다가 '품위 있게 퇴장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26 MARCUS]

범위	Marcus Aurelius the Philosopher King (원서 PDF 191~204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arcus Aurelius was no flawless ruler, and he never imagined he could be one. Christians were persecuted during his reign, a stain he shares with his teacher Rusticus. He eased the lives of slaves only slightly and never challenged slavery itself, and though he spoke of one worldwide community, he made war on peoples he called barbarians. He also made his son Commodus, a disturbed man, his successor. Even so, it is unjust to measure him only against his own words or the nearly unreachable ideals of his philosophy. He should be judged beside others who have held supreme authority, and by that test, as Dio Cassius observed, nobody governed better.

① Rulers are best judged by their own writings.
② Marcus should be judged against other rulers.
③ Marcus's errors show philosophy cannot guide rulers.
④ No persecutor can be called a great ruler.
⑤ A philosopher should not give power to his son.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oss and promise marked the early life of the future emperor Marcus Aurelius. His father died when he was only three, and his two grandfathers, who adored him, brought him up and proudly presented him at court. Even as a child, he was known for telling the truth. The emperor Hadrian, who probably learned of him through his early success in his studies, began to watch him closely and nicknamed him "Verissimus," a playful twist on his family name meaning "the truest one." By ten or eleven, the boy had turned to philosophy, wearing coarse, simple clothes and even sleeping on the bare ground to harden himself. Hadrian, who had no son of his own, surely noticed this devotion.

① Hunting with Hadrian: A Boy's Favorite Sport
② The Truest One: The Boy Who Caught an Emperor's Eye
③ Why Grandfathers Make the Best Teachers
④ A Childhood of Luxury at the Roman Court
⑤ How Trajan Chose Hadrian as His Heir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ad Marcus simply been born perfect, his life would offer little worth admiring. The point is that he was not. He reached his goodness step by step, through effort, which is something all of us are capable of. Marcus would not wish his example to make us feel ashamed; he would want it to remind us of what we are able to do. As he told both himself and his readers, whatever is possible for a human being is possible for you as well. Power did not corrupt him, a terrible epidemic did not frighten him, betrayal did not fill him with rage, and unimaginable personal losses did not break him. The lesson is simple: you are capable of the same.

① Marcus's greatness came from unusual gifts he was born with.
② Marcus earned his virtue through effort, so ordinary people can follow his example.
③ Reading about great people tends to make us ashamed of ourselves.
④ Only those born to power can resist its corruption.
⑤ Personal tragedy is the best teacher of virtue.

4. 밑줄 친 Caesarified, or dyed in purpl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Strangely, being handed enormous power at such a young age somehow appears to have improved Marcus rather than spoiled him. That one ruler escaped the fate of nearly every king can be explained only by Stoicism. Yet we would be unfair to Marcus if we did not credit the hard, deliberate work he put in. He frankly admitted that power breeds spite, trickery, and hypocrisy, and that people of noble birth often show a special cruelty, and he resolved not to follow that pattern. Even in old age he kept warning himself not to become Caesarified, or dyed in purple, because it happens. Instead, he told himself to stay simple, honest, kind, devoted to justice, and faithful to the person philosophy had tried to shape.

① corrupted by imperial power into the kind of ruler most emperors became
② dressed in the purple robes that only emperors were allowed to wear
③ officially adopted into the family of Julius Caesar
④ killed in a violent struggle for the throne
⑤ forced to give up philosophy and devote himself to war

5. 밑줄 친 cut this Gordian kno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161, after the death of Antoninus Pius, the man who had adopted him, Marcus faced a delicate problem. Long before, Arius Didymus had advised Octavian to remove young Caesarion, joking that too many Caesars were a bad thing, and Nero had murdered rival after rival until Seneca warned him that no ruler could get rid of every possible heir. Marcus's position was even more complicated, since his adoptive brother, Lucius Verus, had even stronger links to Hadrian's legacy. What should he do? Marcus cut this Gordian knot easily and gracefully by making his brother a co-emperor. The very first thing he did with unlimited power was to hand half of it away of his own free will.

① solved a seemingly impossible problem with a simple, bold decision
② removed a dangerous rival before he could grow strong
③ delayed a difficult choice until the Senate could decide
④ tied his family to Hadrian's through a marriage
⑤ followed the advice that Arius had once given Octavian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Near the end of Marcus's life, Avidius Cassius, the general he trusted most, turned against ① him and tried to seize the throne. Marcus had every reason to be furious, but ② he told his soldiers that the revolt was a chance to show the world that even a civil war could be handled rightly, by forgiving those who had betrayed them. Soon an assassin killed Avidius, almost certainly expecting that ③ his deed would win Marcus's favor. Instead, Marcus was so saddened by the death that ④ he could not bear to see his enemy's head and ordered it buried. ⑤ He then treated the rebel's supporters, including several senators, with remarkable mercy.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Hadrian never fully explained his reasons, but his plan is well known. On February 25, 138, he adopted Antoninus Pius, a capable and reliable official of fifty, on the understanding that Antoninus would then adopt Marcus. Teachers were chosen and a series of public offices was mapped out. Even after joining the imperial family, Marcus kept visiting his philosophy teachers at their homes instead of making them come to him. When he heard he had been adopted, he reportedly grew sad rather than delighted. Around then he dreamed that his shoulders were made of ivory, which he took as a sign that he could handle the task. He became consul at nineteen and again at twenty-four, and emperor at forty in 161.

① 하드리아누스는 마르쿠스를 후계자로 고른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②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입양될 때 마흔 살이었다.
③ 마르쿠스는 황실의 일원이 된 뒤 철학 스승들을 궁으로 불러 배웠다.
④ 마르쿠스는 상아 어깨 꿈을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징조로 여겼다.
⑤ 마르쿠스는 스물네 살에 처음으로 집정관이 되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A great deal of our knowledge of Marcus's thinking comes from his habit of writing Stoic reminders and sayings to himself. Meditations, the only work known to be his, is packed with quotations from Chrysippus, ideas drawn from Panaetius and Zeno, stories of Socrates, lines of poetry by Aristophanes, and exercises borrowed from Epictetus, plus ideas of his own. The book is dated to 167 AD, and its title comes from the phrase ta eis heauton, meaning "to himself." The title suits it, since Marcus clearly wrote for no one but himself. Some entries, such as one about how Antoninus accepted a customs official's apology at Tusculum, appear with no explanation at all. Still, it has lasted for centuries, and in 1984 the philosopher Brand Blanshard wrote about its enduring value.

① 『명상록』에는 크리시포스의 인용과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② 『명상록』은 서기 167년의 것으로 본다.
③ 『명상록』이라는 제목은 '자기 자신에게'라는 뜻의 말에서 왔다.
④ 마르쿠스는 투스쿨룸 일화의 배경을 독자를 위해 자세히 설명했다.
⑤ 철학자 브랜드 블랜샤드는 1984년에 『명상록』의 가치에 관해 썼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At Aquincum, a Roman camp near modern Budapest ① where Marcus is thought to have written part of Meditations, archaeologists discovered a huge limestone figure of a toga-wearing emperor. At first its head seems ② to have broken off; yet careful study shows that it was made to be removable, so that worshippers could put on a new head whenever a new emperor ③ took power. Knowing he was only a temporary occupant kept Marcus from ④ letting his rank go to his head. Hadrian once grew so angry ⑤ what he drove a stylus into a secretary's eye, and he suffered nothing for it. Marcus could have behaved the same way, but he held his temper.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his journal, Marcus also prepared himself for the blows fate kept aiming at him. Life, he wrote, is war and a long journey away from home, and for him this was literally so: he spent some twelve years on the northern frontier along the Danube (A) [fighting / to fight] long and brutal wars. When he finally returned to the city after a long absence and mentioned how long he had been gone, the crowd shouted "Eight!" while raising four fingers on both hands. Grateful, he gave each citizen eight hundred sesterces, the (B) [larger / largest] gift any emperor had ever given the people. He also wiped out countless debts owed to his private treasury, burning the records in the Forum so that they could never (C) [recover / be recovered].

	(A)	(B)	(C)
①	fighting	largest	be recovered
②	to fight	larger	recover
③	fighting	larger	be recovered
④	to fight	largest	be recovered
⑤	fighting	largest	recover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Marcus did not cry because he was weak, nor because he had failed as a Stoic. His tears came from being human, and from painful events that made him ① sad. As Antoninus gently said while letting him weep, neither philosophy nor imperial power can remove ② natural feeling. Marcus must also have lost his temper at times; otherwise he would never have needed to remind himself, in notes he never meant to publish, to hold his anger ③ under control. He felt desire and fear, and he even dreamed of his rivals disappearing. Yet he did not try to tame ④ every emotion. He worked only on the ⑤ harmless ones, those that might push him to betray what he believed.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s a rule, sensitive, thoughtful people make poor leaders, since ruling means facing the disorder of the world and human weakness every day. Philosopher kings are rare not only for lack of chances but because most philosophers lack what the job demands. Marcus, however, had both the strength and the sharp mind it required. He warned himself not to expect the ideal state Plato imagined; he had to accept the world as it was and work with what was available. If a cucumber tastes bitter, throw it away; if thorns block the path, walk around them. Though he loved ideas, Marcus was, like Lincoln, remarkably _____.

① practical, dealing with reality on its own terms
② idealistic, accepting nothing less than perfection
③ sensitive, avoiding hard decisions
④ ambitious, eager to build monuments
⑤ withdrawn, preferring books to ruling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Instead, Dio Cassius reports, he took the imperial treasures to the Forum, where he sold them off for gold.

When plague struck Rome, no one would have blamed Marcus for leaving. (①) But he stayed, fearlessly showing the people that his duty mattered more than his safety. (②) Later, plague and constant war emptied the treasury, and again he had to choose between an easy path and a hard one. (③) He could have raised taxes, plundered the provinces, or left debts for future emperors to pay. (④) Once the barbarian revolt was crushed, he paid back those who willingly returned the items, but forced no one. (⑤) Though he legally controlled the budget, he never treated it as his own.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Marcus lived modestly, yet no one could call him stingy; as emperor he followed a rule from his diary: be patient with others and hard on yourself. ① Such strict self-control must have been exhausting. ② Even so, Meditations holds no complaints, no private grief, and no blaming of others. ③ When he longed for the seaside, the mountains, or his library, he told himself that no holiday was needed to recover. ④ Romans believed that burning incense could keep a family safe from disease. ⑤ The most restful retreat, he wrote, lies within one's own soul, and he urged himself to go there often.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oward the end, Marcus fell seriously ill on the German battlefields near what is now Vienna, far from home.

(A) With his son gone, he spent his last hours still teaching his grief-stricken friends, asking why they wept for him instead of reflecting on the plague and the death that awaits everyone.

(B) Afraid of passing his sickness to his son, and hoping to avoid any quarrel over the succession, he tearfully said goodbye and sent the young man off to get ready to rule.

(C) He lived about one more day. On March 17, 180, aged fifty-eight, he told his guard to turn to the rising sun, since he himself was already setting. Then, his head covered, he fell asleep and never woke.

① (A) – (B) – (C)
② (A) – (C) – (B)
③ (B) – (A) – (C)
④ (B) – (C) – (A)
⑤ (C) – (A) – (B)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oss shaped Marcus's later years as it had his childhood. Between 149 and 169 he buried newborn twin sons, his eldest daughter, several more young sons, his sister, his mother, his adoptive father, and finally his brother and co-ruler, Lucius Verus; soon after, his wife died too. In all, eight of his children died before him. Such grief could crush anyone and turn a person against a cruel world. Yet Marcus wrote that it was not bad luck that something painful had happened; it was good luck that he had come through it undamaged, neither crushed by the present nor afraid of the future.

→ Although Marcus suffered one (A) _____ after another, he considered it good fortune that he had remained (B) _____ by them.

① victory …… untouched
② loss …… unbroken
③ illness …… frightened
④ loss …… shattered
⑤ war …… famou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8)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138, Hadrian made Antoninus Pius his adopted son, but only if Antoninus agreed to adopt young Marcus as well. Later, Junius Rusticus handed him a copy of Epictetus, a man who had once been a slave. On becoming emperor in 161, Marcus made his adoptive brother, Lucius Verus, co-emperor. When plague struck Rome, he stayed in the city instead of fleeing. He spent some twelve years fighting along the Danube, and when Avidius Cassius, the general he trusted above all others, attempted a coup, he treated the rebels with mercy. His private notes to himself became the book Meditations. In the end, his son Commodus succeeded him.

<QUIZ>

(1) Who adopted Antoninus Pius so that Antoninus would in turn adopt Marcus?
Answer for (1): _____

(2) Who handed Marcus a copy of Epictetus?
Answer for (2): _____

(3) Whom did Marcus make co-emperor in 161?
Answer for (3): _____

(4) Which general attempted a coup against Marcus?
Answer for (4): _____

(5) What did Marcus's private notes to himself become?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Marcus fled Rome when plague struck?
Answer for (6): _____

(7) Along which river did Marcus spend some twelve years fighting?
Answer for (7): _____

(8) To whom did Marcus leave the throne?
Answer for (8): _____

<보 기>

A. Lucius Verus	N. Nero
B. Antoninus Pius	O. Octavian
C. Avidius Cassius	P. Plato's Republic
D. Debts and Lessons	Q. Aquincum
E. Meditations	R. Rusticus
F. False	S. Seneca
G. Hadrian	T. True
H. Herodian	U. Danube
I. Epictetus	V. Vienna
J. Julius Caesar	W. Trajan
K. Caesarion	X. Tusculum
L. Commodus	Y. Dio Cassius
M. Musonius Rufus	Z. Zeno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기독교인들이 구원자를 위해 기도했듯이, 스토아도 자신들과 같은 바탕의 지도자가 태어나기를 바랐다. (Just as ~, so too + 조동사 + S)

02 하드리아누스는 안토니누스가 다시 마르쿠스를 입양한다는 조건으로 그를 입양했다. (조건의 that절 + 동사원형)

03 그는 자기 지위가 높아지지 않은 것처럼 계속 살았다. (as if + 과거완료)

04 왕으로 뽑힌 것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 (동명사 주어 + seem to have p.p.)

05 그가 절대 권력으로 한 첫 일은 그 절반을 스스로 나누는 것이었다. (The first thing ~ did + 원형부정사 보어)

06 우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사는 집조차 여러분의 것이다. (so far from -ing that)

07 그는 적의 잘린 머리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다. (cannot bring oneself to V)

08 철학도 제국도 타고난 감정을 없애지는 못한다. (Neither A nor B + 단수 동사)

09 자신이 잠시 자리를 채우는 사람일 뿐임을 아는 것이 그가 우쭐해지지 않게 도왔다. (동명사 주어 + help + O + 원형 / prevent ~ from -ing)

10 좋은 사람 말고는 누구도 좋은 왕이 될 수 없다. (it is impossible for A to V / but(~을 제외하고))

11 네 영혼 안보다 더 평화로운 쉼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Nowhere + 조동사 + S 도치)

12 그의 글에 죽음보다 더 자주 나오는 주제는 없다. (부정 + 비교급 than = 최상급)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출생 연월일 / 본명	
아버지를 잃은 나이 / 하드리아누스가 붙인 별명	
철학에 빠진 나이 / 하드리아누스를 고른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안토니누스를 입양한 날 / 안토니누스의 나이	
그 자리에 오른 사람 수 / 꿈속에서 상아로 된 신체	
두 번 집정관이 된 나이 / 황제가 된 해와 나이	
아버지가 된 나이 / 아내 · 아이 수 · 살아남은 수	
역병 이름 · 희생자 · 기간 / 국경 전쟁 기간	
에픽테토스의 책을 준 사람 / 공동 황제	
쿠데타를 꾀한 장군 / 황실 장식품을 판 곳	
성품으로 배움을 증명했다고 쓴 역사가 / 스승의 죽음에 울었다고 전한 책	
『명상록』의 연대 / 원어 제목의 뜻	
'빚과 배움'의 항목 수 · 분량 / 1984년에 『명상록』을 평한 철학자	
'공동선'이 나오는 횟수 / '갈레네'가 나오는 횟수	
조각상이 발굴된 진지 · 근처 도시 / 비서를 철필로 찌른 황제	

항목	답
기독교인의 보호자로 여긴 저술가 / 왕좌를 물려받은 아들	
무소니우스가 조언한 왕 / 무소니우스를 잇따라 박해한 황제 수	
원정한 강과 기간 / 귀환 때 나눠 준 돈	
향의 믿음을 전한 저자와 책 / 병들어 죽은 곳	
죽은 날 · 나이 / 경비병에게 한 말	

4-3. 통합 사고 문제 — 25장과 26장을 잇는 자리

문제

25장에서 마르쿠스가 루스티쿠스에게서 세네카가 네로에게 전하려다 실패한 모든 것을 배웠고, 루스티쿠스가 스승들이 좀처럼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냈다는 대목(186쪽 ¶2 · ¶5)과, 26장에서 마르쿠스의 길이 네로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려 준 길과 아주 다르지는 않았다며 결과가 다를지 물은 대목(193쪽 ¶4), 그리고 마르쿠스가 『명상록』 첫머리에서 루스티쿠스에게 감사한 대목(198쪽 ¶1)을 비교하여, 루스티쿠스는 해냈고 세네카는 해내지 못한 일을 나타내는 영어 동사 한 단어를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25장 또는 26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스승 루스티쿠스가 해낸 일: Rusticus _____ Marcus Aurelius; Seneca never got through to Nero.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